

일 시

2013년 5월 23일(목), 14:00

장 소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주 관

육아정책연구소

2013

제 7 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제 7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제 7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진행 일정

● 일시 : 2013. 5. 23(목), 14:00 ~ 17:20

● 장소 :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시 간	일 정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이영 육아정책연구소장
14:10~14:20	환영사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14:20~14:50	주제발표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이희경 (부천대학교 교수,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총무이사)
14:50~15:20	주제발표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이미정 (여주대학교 교수, 한국보육아동관련학과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15:20~15:40	휴식
15:40~16:50	지정토론 좌장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수)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정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남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신경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이사) 김수영 (부산시청어린이집 교사) 류혜정 (온양동신유치원 교사)
16:50~17: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20	폐회

차 례

1. 「누리과정 발전포럼」 발표자료	1
●●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3
- 이희경(부천대학교 교수,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총무이사)	
●●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28
- 이미정(여주대학교 교수, 한국보육아동관련학과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문	57
●● 서영숙(숙명여자대학교 교수)	59
●● 이정욱(덕성여자대학교 교수)	63
●● 이남주(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70
●● 신경은(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이사)	73
●● 김수영(부산시청어린이집 교사)	77
●● 류혜정(온양동신유치원 교사)	81
3. 부 록	85
붙임 1. 「누리과정 발전포럼」 추진 계획	87
붙임 2. 「누리과정 발전포럼」 위원 구성	89
붙임 3.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회 개최 일정 및 토론 주제	92

1. 「누리과정 발전포럼」
발표자료

1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이 희 경 (부천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2013년은 3,4,5세의 전 연령에 누리과정이 적용된 해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3~5세 유아교육의 공교육 시대를 개막한 역사적인 해라 할 수 있다. 즉,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 100여년의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커다란 성과라고 여겨진다. 누리과정은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하루 3~5시간의 보편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공통과정이다. 이에 누리과정 도입은 우리나라 3~5세 유아교육이 전면적인 공적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점, 그리고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2011년 5월 2일에 만5세 공통과정 시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최근의 2년 동안에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왔기에, 누리과정으로의 내용통합은 그동안 학계 및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던 교사의 전문성 문제를 보다 민감하게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다.

갑작스런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가는 전국의 모든 누리과정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각 시,도 중심의 대대적인 누리과정 연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교사 집합교육은 유례에 찾아보기 어려운 데, 이것은 국가수준의 누리과정이 어느 정도 동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점, 그리고 교사가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해야 하는 점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국적인 교사연수는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졌기에, 정작 양성대학에서는 졸업을 목전에 둔 예비교사들에게 누리과정의 적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수준 높은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어도 교육의 성과는 이를 실행하는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이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뚜렷한 교직원과 윤리관을 확립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권은희·성영혜, 2012)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현재 누리과정 교사란 전국의 모든 3~5세 교사를 일컬으므로, 교사의 자격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유아교사 양성과정은 양성경로, 양성교육과정, 양성기간, 자격증의 종류, 자격취득 요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유아교사의 전문성은 양성과정에서부터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는데(나정, 2001; 양옥승, 2002; 윤정일, 2002; 조형숙·이경민, 2004; 신은수, 2007, 교과부, 2009; 이희경, 2010), 특히 최근에는 교과부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수업연한을 현행 2~3년에서 4년의 학사 과정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있다(박은혜 외, 2010, 김영옥 외, 2013).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확보의 조건으로 교사의 학력과 양성교육과정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신은수, 2007), 유아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으로 수업 연한의 4년 단일화 및 핵심역량에 근거한 양성교육과정의 구성이 필요하고(임승렬, 2011), 교육과정 실행주체로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전홍주·박은혜, 2007; 염지숙, 2011) 등에서 학력과 양성교육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다. UNESCO는 2011년에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의 0단계(0~2세와 초등 입학전)를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으로 명명하였으며, 0단계를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학(pedagogy)’을 이수하여 교육학적 소양을 가진 교사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권고하였다(박은혜·신은수, 2012). 이것은 0세에서 취학전까지의 과정을 교육의 과정으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교과부, 2013a)에 의하면,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양성과정의 학력과 교육과정 기준으로 확고하게 하려는 방안이다.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일정 수준의 동질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된 누리과정이 도입된 것처럼 누리과정 담당 교사, 즉 유치원 교사 교육도 양성과정에서부터 교사의 교육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동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사 학위 그리고 양성교육과정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수업연한의 단일화와 양성교육과정의 표준화는 양성과정의 획일성 추구가 아닌 양성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에서 강구되어야 하며, 양성과정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의 양성현황을 소개하고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

성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치원 교사 양성 현황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중심으로 양성된다. 유아교육과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형의 양성체제를 이루고 있다. 유치원 교사의 양성현황은 양성과정의 입학정원, 입학자수, 졸업자수, 자격증취득자수, 취업자수 등에 대한 각종 통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의 유아수, 교원수, 취원을 등 유치원 현황도 주요 분석자료가 된다.

(1) 유치원 교원 양성 대학의 설립별 기관수와 입학 정원

〈표 1〉에서 2011년 현재 양성기관수는 대학교가 86개, 전문대학이 106개로 총 192개교이다. 설립별로 보면 대학교는 국·공립과 사립 대학, 방송통신대, 산업대학이 있고, 전문대학은 국립과 사립대학이 있다. 연도별 학생수 현황을 보면 2008년에 전체 정원이 15,865명이었는데 해마다 정원이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15,280명이다. 2011년 학생 정원을 학교별로 비교해보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9,058명으로 방송통신대를 포함한 대학교 전체 15,280명의 59.3%이며, 대학(국공립, 사립) 3,277명의 2.8배가 된다. 그러나 입학정원을 통해 교사 자격증 발급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표 1〉 유치원 교원 양성대학의 수 및 입학정원(2008~2011)

구분 과정별	설립별	기관수	학 년 도 별 정 원				
			11학년도	10학년도	09학년도	08학년도	합계
대학교	국공립	13	407	416	396	367	1,586
	사립	69	2,870	2,960	2,953	2,913	11,696
	방송통신대	1	2,700	2,700	2,700	2,700	10,800
	산업대	3	245	260	260	260	1,025
	소계	86	6,222	6,336	6,309	6,240	25,107

구분 과정별	설립별	기관수	학 년 도 별 정 원				
			11학년도	10학년도	09학년도	08학년도	합계
전문대학	국립	2	110	110	110	110	440
	사립	104	8,948	9,032	9,178	9,515	36,673
	소계	106	9,058	9,142	9,288	9,625	37,113
총계	국공립	16	3,217	3,226	3,206	3,177	12,826
	사립	176	12,063	12,252	12,391	12,688	49,394
	합계	192	15,280	15,478	15,597	15,865	62,22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2) 유아교육(과)의 입학정원, 졸업자 및 취업자수, 취업률

〈표 2〉는 2012년도 유아교육(과)의 입학 정원, 졸업자 및 취업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¹⁾

〈표 2〉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의 입학정원, 졸업자, 취업자 현황(2012)

구분	전문대학	대학	방송통신대학교	계
입학정원	9,920	2,525	2,700	15,145
졸업자수	9,222	2,498	2,695	14,415
취업자수	7,067	1,825	-	
취업률(%)	80.1	75.8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입학정원은 2012년 교육통계연보 자료

졸업자 및 취업자 수, 취업률은 2012년도 취업통계조사의 건강보험가입취업자 기준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자수는 편입생 졸업자수(1620명 : 방송통신대학교 제공자료) 포함

2012년 현재 유아교육(전공)학과의 전체 신입생 입학정원은 15,145명이며,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졸업자수는 11,720명이다. 전문대학교 졸업자수는 9,222명으로 대학 졸업자 2,498명의 3.7배가 되어 전문대학 졸업자가 월등히 많은 수로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졸업자 수는 2,695명으로, 대학 정원 2,498명보다 200여명이 많다. 그러나 방송대학 졸업자수에는 다수의 편입학자가 포함되어 있고

1) 본 연구에서 인용한 통계자료는 출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3학년 편입학자는 대부분이 전문대학 졸업자이므로 전체 졸업자수에 전문대학 졸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유아교육과는 대학의 타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는데, 전문대학은 취업률 80.1%로 취업률 상위 전공순위가 2위이며, 대학은 취업률 75.8%로 7위를 나타내고 있다. 근소한 차이이지만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취업순위와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수업연한과 모집 정원

2013년 현재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는 99개 대학이며, 입학정원은 7,974명으로 조사되었다(2013년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자료). 전문대학 수업연한은 2002년 입학자부터 2년제에서 3년제로 개편이 가능해졌는데, 현재 99개 대학 중 3년제 대학이 85개 대학으로 전체의 85.9 %이며, 2년제 대학은 14개로 14.1%에 해당된다. 입학정원은 30명에서 160명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정원은 80.5명(7,972명/99개)인데, 이것은 4년제 대학의 평균 입학 정원 33.2명(이희경, 2010)과 비교할 때 많은 수이다. <표 1>의 2011년 기준과 비교해보면, 대학수는 106개에서 99개로, 입학 정원은 9,058명에서 7,974명으로 축소되어 7개 대학 및 1,080명이 감소했다.

<표 3>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수업연한, 모집 정원(2013)

수업연한	대학수(%)	학생수(%)
2년제	14(14.1)	1,222(15.3)
3년제	85(85.9)	6,752(84.7)
계	99(100)	7,974(100)

(4) 양성대학의 유치원교원 자격증 발급 상황

자격증 발급현황은 양성과정에서 배출되는 자격증수를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 유치원교원 자격증은 교육부에서 1965년부터 발급되어 왔는데, 2012년에 발급된 유치원교원 자격증 발급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유치원 교원자격증 발급현황

구분	2급정교사	1급정교사	원감	원장
시도교육청	8	1,605	207	276
대학	1,937			
전문대학	5,895			
방송통신대학	1,350			
산업대학	117			
계(11,395명)	9,307	1,605	207	276

출처 : 교육통계(2012)

(시도교육청 : 2011.1.1~2011.12.31, 고등교육기관 : 2011.3.1~2012.2.29)

2012년 2월 기준으로 한해에 발급된 전체 교원자격증은 11,395건인데 그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은 9,307명에 해당된다. 2급자격증은 대학 및 산업대학이 2,054명으로 22.1%, 방송통신대학이 1,350명으로 14.5%인데, 전문대학은 5,895명으로 전체의 63.4%에 이른다. 한편 1급 정교사 자격증은 1,605건으로 2급정교사 자격증(9,307건)의 17.2%, 원감자격증은 1급 교사 자격증의 12.9%(207명/1605명) 수준으로 발급되어, 유치원교원의 승급이 매우 적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급정교사 자격증 취득자수를 〈표 1〉과 〈표 2〉에 나타난 최근의 양성대학 입학 정원 1만 5,000명 정도와 비교해 보면, 양성대학을 졸업한 후에 주어지는 2급정교사 자격증 발급수는 입학정원의 약 62%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운영 대학수와 입학정원

전문대학은 2008년부터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이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공심화과정 운영대학이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13년 입학자부터 종전의 산업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만의 입학 자격 조건이 수정되어 산업체 경력이 없어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개설 당시에는 11개 대학에 모집 정원 320명이었으나, 2013년 현재 35개 대학에 모집 정원이 90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1년 혹은 2년(+1 : 3학년, +2 : 3학년과 4학년) 동안 계속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School to Work, Work to School의 순환교육 체제로 운영된

다. 대학별 입학정원은 15명에서 40명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정원은 26명이다. 대부분 현직교사가 입학하며 1개 대학은 주간으로, 나머지 모든 대학은 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5>는 2013년 전공심화과정 운영 대학수와 입학정원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운영 대학수와 입학정원

구분	대학수		학생 수	
	4학년(+1)	3,4학년(+2)	주	야
	31	4	40	869
총계	35(개)		909(명)	

출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2013)

(6) 학력별 유치원 교원의 현황

2011년 기준 유치원 교원은 공립 교원이 9,221명, 사립 교원이 29,423명으로 전체 38,662명이다. 사립 교원이 공립 교원의 3배가 넘는 숫자이다. 이들의 학위 분포를 보면 <표 6>과 같다. 학력별로 보면, 2년제 졸업자가 18.75%(7,250명), 3년제 졸업자가 30.29%(11,709명), 4년제 졸업자가 36.14%(13,973명), 석사 졸업자가 13.04%(5,429명), 박사 졸업자가 0.72%(277명)로 나타났다. 2,3년제 전문대와 4년제대 졸업자만을 비교하면 49.04%(18,959명)와 36.14%(13,973명)를 보여, 전문대학 졸업자가 12.9%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4년제 대학 출신교사 36%는 UNICEF에서 제시한 학사 교사 비율 5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4년제 대졸이상의 교사는 49.9%(19,679명)이며, 2년제와 3년제 전문대학 졸업교사는 49.04%(18,959명)로, 학사 취득 교원이 전문 학사 교원보다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와 비교할 때, 양성과정에서는 전문대 출신의 교사자격증 발급이 전체의 63.4%로 높게 나타났는데, 현직 교사들에서는 4년제 학사 출신교사가 전문학사 출신교사보다 오히려 720명이나 많다. 이것은 전문대학 출신의 교사들이 졸업 후에 전공심화과정 입학이나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위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치원 교원 중에 5,429명(13.4%)이 석사 학위를, 277명(0.72%)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학력을 높였는데,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사립유치원 교사보다 대학원 진학을 월등히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학위 취득별 유치원 교원의 수 (명/%)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38,662 (100)	18 (100)	9,221 (100)	29,423 (100)
고졸	24 (0.06)	0 (00)	9 (0.10)	15 (100)
2년제대졸	7,250 (18.75)	1 (5.55)	928 (10.06)	6,321 (21.28)
3년제대졸	11,709 (30.29)	0 (00)	137 (14.86)	11,572 (39.33)
4년제대졸	13,973 (36.14)	4 (22.22)	4,837 (52.46%)	9,132 (31.04)
대학원석사졸	5,429 (13.04)	13 (72.22)	3,266 (35.42)	2,150 (7.31)
대학원박사졸	277 (0.72)	0 (00)	44 (0.48)	233 (0.79)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 DB

(7) 유치원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취원률

최근 6년간의 유치원수, 원아수, 학급수, 교원수, 취원률 등 유치원 현황을 보면 〈표 7〉과 같다. 유치원의 현황은 양성대학의 양성과정 계획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치원수는 2007년에 8,294개였다가 해마다 50개, 29개, 15개씩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전년도보다 114개가 증가한 8,538개원이며, 2013년은 57개가 증가한 8,595개(국립 : 3, 공립 : 4,549, 사립 : 4,043)이다(교육부 제공, 2013. 3. 1 기준). 공립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12년에는 77개가 증가하여 18.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사립의 경우는 167개가 증가하여 21.1%의 증가율을 보였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수 비율은 53.63%와 46.37%이다.

원아수는 2007년에 비해 2008년과 2009년에는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9%가 증가한 613,749명이다, 이것은 5세 누리과정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원수는 2012년 현재 42,235명이며 그중 국공립 교원이 9,969명(23.69%), 사립 교원이 32,266명(76.40%)로 나타나, 사립교원수가 공립교원수의 3.24배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원수는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현재는 2012년(38,662명)보다 3,573명이 증원 되었다. 한 해 동안의 증가수(3,573명)는 신규 자격증 취득자수(2012년 : 9,307명)의 38.4%에 해당되므로 퇴직 교원수를 감안하더라도 교사수의 증가율은 교원수급 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급수는 2007년(23,860개)에 비해 2012년에 11.89%(28,368개) 증가했으며, 취원율은 2007년의 37%에서 2009년에 40%, 2011년에 44%였다가 2013년은 누리과정이 3~5세로 전면 확대되면서 46.7%로 신장되었다.

〈표 7〉 유치원 현황(2007~2012) : 유치원수,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취원률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원수	국공립	4,448 (53.63)	4,483 (53.73)	4,493 (55.66)	4,501 (53.66)	4,502 (53.44)	4,525 (52.99)
	사립	3,846 (46.37)	3,861 (46.27)	3,880 (44.34)	3,887 (46.34)	3,922 (46.56)	4,013 (47.01)
계		8,294	8,344	8,373	8,388	8,424	8,538
원아수	국공립	118,422 (21.87)	119,128 (22.15)	125,536 (23.36)	126,577 (23.50)	126,095 (22.32)	127,347 (20.75)
	사립	423,128 (78.13)	418,694 (77.85)	411,825 (76.64)	412,010 (76.50)	438,739 (77.68)	486,402 (79.25)
계		541,550	537,822	537,361	538,587	564,834	613,749
학급수	국공립	6,646 (27.85)	6,789 (27.63)	6,887 (27.65)	7,129 (27.77)	7,279 (26.97)	7,535 (26.54)
	사립	17,214 (72.15)	17,778 (72.37)	18,021 (72.35)	18,541 (72.23)	19,711 (73.03)	20,851 (73.46)
계		23,860	24,567	24,908	25,670	26,990	28,386
교원수	국공립	8,163 (24.36)	8,482 (24.51)	8,628 (24.36)	8,827 (24.20)	9,239 (23.90)	9,969 (23.60)
	사립	25,341 (75.64)	26,119 (75.49)	26,787 (75.64)	27,634 (75.80)	29,423 (76.10)	32,266 (76.40)
계		33,504	34,601	35,415	36,461	38,662	42,235
취원율	5세	56	52	53	56	56	56.3
	전체	37	38	40	41	44	43.5

출처 : 교육부 통계(2012)

2013년의 유치원 취원율 46.7%는 2012년 43.5%보다 3.2% 증가한 것이며, 연령 별로 볼 때 3세는 31.7%, 4세는 48.9%, 5세는 57.3%를 나타냈다. 어린이집의 3~5세 유아수(617,870명)를 포함하면 전체 취원율은 90.6%(1,275,685/1,408,498명)²⁾이며, 3세는 91.0%, 4세와 5세는 90.4%로 나타났다. 누리과정의 연령 확대로 전 연령에 90%이상이 취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유치원수, 취원아수, 취원율(2013) (명/%)

구분		전체	3세	4세	5세
취원대상아(명)		1,408,498	446,256	467,432	494,810
취원아수	국공립	144,486 (21.96)	18,997 (13.43)	45,224 (19.41)	80,265 (28.31)
	사립	513,329 (78.04)	122,444 (86.57)	187,719 (80.59)	203,166 (71.69)
계(명)		657,815 (617,870)	141,441 (264,311)	232,943 (189,616)	283,431 (163,943)
취원율	국공립	10.3	4.3	9.7	16.2
	사립	36.4	27.4	40.2	41.1
계(%)		46.7	31.7	48.9	57.3

출처 : 교육부 제공(2013.3.4. 기준)

* 취원대상아수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 취원아수계의 ()는 어린이집 이용자수 :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2013.5.8. 기준)

* 출처와 기준일에 차이가 있음

(8) 교원 1인당 원아수

교원 1인당 원아수는 1985년 33.9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14.8명으로 조사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것은 전국 통계이며, 지역 간 격차는 매우 클 것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의 평균 교사 1인당 유아수는 14.4명인데 돌보는 성인의 수를 합한 비율은 1 : 12.3명이다(교육통계, 2012). 자격소지자 교사수를 기준으로 할 때, 프랑스는 21.5명, 스웨덴은 6.3명, 이탈리아 11.8명, 독일 12.6명이다. 교원양성 계획은 교사 1인당 원아수, 유치원아수, 학급수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치원 현황

2) 전체 취원 대상자수 1,408,498명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수이며, 전체 취원아수 1,275,685명은 유치원(2013. 3.4일 기준)과 어린이집(2013.5.8.일 기준) 취원아수를 합한 수임.

자료는 양성과정 운영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표 9〉 교원 1인당 원아수(1982~2010)

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원아수	33.9	22.4	20.7	19.5	17.5	14.8

3.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교육과정 운영 현황

1)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

(1) 2급 정교사의 자격 기준

유치원 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신규교사인 정교사(2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법률 11690호, 시행 2013. 3.23.).

〈표 10〉 [별표 2] 교사 자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급별	자격기준
정교사 (2급)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 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 사학위를 받은 자.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참고 : 준교사 자격증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나, 현직교사 중에 소수의 소지자가 남아 있음으로 기준 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2항의 ‘보육’은 교육으로의 변경안이 제시되어 있음.

[별표 2]의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기준과 학점(보육과 교직 학점) 기준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격 검정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의 해 규제된다.

(2) 교원자격 검정 기준

유치원 교원의 자격 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원검정령에 의해 무시험검

정 합격 기준의 적용을 받는데, 합격 기준은 [별표1]에 제시되어 있다(개정 2013. 3. 23).

〈표 1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2013.3.1. 이후 입학자)

○ 무시험검정 성적 기준 1)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2)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 이수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대상자	전문대학		4년제	교육대학원	
	2년제	3년제			
2013.3.1. 이후 입학자	1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법령개정당시 재학생중 2013.3.10이후 졸업자	권장	1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권장

출처 : 교과부(2013b).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

2013년 입학자부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점/100에서 전공 75점, 교직 8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유치원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부터 필수적으로 다루게 하였으며, 교사의 인성과 적성 검사를 양성과정 중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3)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표 12〉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이수기준이다(별표 3. 개정 2012.11.21.). 과목의 이수기준은 고시문의 개정에 따라 입학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표 12〉는 2013년도 이후의 입학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과목 이수기준은 전문대학과 대학의 구분 없이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즉,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이상)과 교과영역의 과목(3과목 8학점 이상)을 포함해 50학점을,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을 포함해 2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12〉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2) 유치원 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1) 전문대학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전문대학의 양성과정은 2년제와 3년제가 있다. 수업연한의 차이로 4학기 또는 6학기 동안 80학점 그리고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 충족 조건이 된다. 3년제 유아교육과 22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나타난 과정별 개설 학점 현황은 다음과 같다(이희경외, 2009).

〈표 13〉 3년제 전문대학 과정별 개설 학점 학점(비율)

구분	교양	교직	전공	학점계
분포	0~36	19~32	85~101	120~149
평균	16.45	24.63	88.95	130
비율(%)	12.65	18.95	68.42	100

〈표 13〉에서 교양과목은 평균 16.45학점, 교직과목은 24.63학점, 전공과목은 88.95학점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 전공과목의 비중(68.42%)이 높은 반면 교양과목의 비중(12.65%)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양과목의 분포가 0~36학점을 나타내 양성대학마다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교직과목의 분포는 19~32학점으로 나타나 학교별로 차이가 크지만, 자격 기준의 과목을 모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공과목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중에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부모교육’은 조사 대상 대학의 100%가 개설했으나, ‘유아건강교육’과 ‘영유아발달과 교육’은 4.5%,

9.1%만이 개설하여 기본이수과목 개설의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이희경외, 2009). 이것의 이유는 기본이수과목의 선택 기준(7과목 21학점 이상)을 일정 수준으로 적용하면서 기타 전공과목에 보육교사 자격과목을 포함해 개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예로, ‘보육실습’은 조사 대상의 모든 대학이 개설했으며, 기악(피아노), 놀이지도, 아동문학 등의 과목을 80% 이상 개설하였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직업교육 분야로의 재교육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체의 직무 능력을 신장시켜 산학일체형의 심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양한주외, 2008). 따라서 실무능력의 향상을 통해 전문 직업인양성을 추구하며 실무 위주의 전공과목으로 운영된다. 개설학점은 전문학사학위의 이수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고등교육법제58조의 3), 2년과정은 60학점, 1년과정은 20학점 이상을 운영한다.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설치목적이나 개설 학점 기준이 반영되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12개 대학과 운영과목 111개를 분석한 결과에서 75%의 대학이 교과목 구분을 교양/전공의 구분이 없이 운영하였으며, 과목별 수업 방법으로 실기위주가 51(50%), 실기와 이론 비중 비슷이 24(21.6%), 이론위주가 36(33.4%) 과목으로 조사되었다(김수연, 2009). 또한 개설과목이 대학마다 수요자 요구조사를 반영해 개발되어 과목명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공심화과정 운영 대학은 정책적으로 해마다 수요자만족도 조사를 하여 교과목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4년제 대학 양성교육과정의 현황

4년제 대학은 대학에 따라 학부 및 계열, 혹은 독립학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표 14>는 35개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박은혜 · 이희경외, 2010).³⁾

3) 본 연구의 일부 자료는 교과부 선진화기반조성사업 ‘유치원교원양성 및 임용 체제 개선방안’(박은혜 · 이희경, 2010)에서 인용함.

연구 대상 : 1. 연구교육과정 편성에 나타난 과목 조사 : 전문대학 : 22개 대학, 4년제 대학 : 35개 대학, 2.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운영 방안 조사 : 유아교육과 학과장 설문응답 분석 : 전문대학 : 54개 대학 (2년제 : 9개, 3년제 : 45개) 4년제 대학 : 27개 대학

〈표 14〉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학점 편성현황

구분	교양	교직	전공	계
평균	39.88	22.92	92.38	154.65
비율(%)	25.79	14.82	59.73	100

교양과목은 평균 39.88학점 개설하여 전체의 25.79%, 교직과목은 평균 22.92학점 개설하여 전체의 14.82%, 전공과목은 92.38학점 개설하여 전체의 59.73%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교양과목은 대학에 따라 교양과정 전담기관이 있기도 하고 학과에서 운영하기도 하여, 개설된 과목수 및 이수 기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공과목은 대학에 따라 전공기초와 선택, 필수로 운영하거나 기본과 심화 과정, 전공기본 및 심화와 현장실무 영역, 학년별 위계적 구분, 트랙별 구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학별 전공과정의 구분 방식이 다양하다. 개설과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부모교육’은 모든 대학이 개설했으며, ‘영유아 발달과 교육(20%)’, ‘유아건강교육(11.43%)’, ‘유아관찰 및 실습(20%)’의 개설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부 기본이수과목명과 유사한 보육자격관련 과목이나 기타 전공과목을 많이 개설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표 15〉는 전문대학 54개 대학(2년제 : 9개, 3년제 : 45개)과 4년제 27개 대학의 교육과정자료를 분석해 학점 편성 현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5〉 수업연한에 따른 교육과정 학점 편성현황 학점(비율)

구분	교양	교직	전공	계
2년제	8.44(8.90)	22.44(23.65)	64.00(67.45)	94.88(100)
3년제	14.56(11.36)	24.91(19.55)	90.44(69.62)	129.91(100)
4년제	39.88(25.79)	22.92(14.82)	92.38(59.73)	154.65(100)

출처 : 박은혜 · 이희경 외(2010). 유치원교원 양성 및 임용체제 개선 방안(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5). 교과부.

교양과목은 2년제 전문대학이 8.44학점, 3년제 전문대학이 14.56학점, 4년제 대학이 39.88학점으로 나타나 수업연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 과목은 교직 이수기준(22학점 이상)의 적용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별로 차이가 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업연한에 따른 졸업학점이 80(2년제), 120(3년제), 140(4년제 대학은 120~140까지 다양하게 운영) 학점임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전공 학점의 비율이 높으며, 3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전공 학점을 더 많이 이수하는 경우도 있다. 4년제 대학은 기본이수과목을 17과목 중 10.94개를 개설하여 전문대학(11.82개)보다 오히려 적게 개설하였고 과목명의 다양함을 보였다.

4.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1) 교사의 자격기준을 통해 본 전문성 제고 방안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은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한다. 2013학년부터 적용되는 정교사 2급의 교직 및 전공기본이수 과목의 학점 기준은 <표 16>과 같다.

<표 16> 교직과목과 전공기본이수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

구분		과목명	계	
교 직	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6과목 12학점 이상	22 학점 이상
	소양	특수교육학 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각 2학점이상	3과목 6학점 이상	
	실습	학교현장실습 :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 2학점 이내 포함	2과목 4학점 이상	
전 공	교과	교과논리 및 논술,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및 연구법, 그 외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	3과목 8학점 이상	50 학점 이상
	기본 이수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 및 실습, 부모교육	7과목 21학점 이상	
	기타	기타 전공 과목		

* 교직과목은 [별표 2]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2012.11.21 개정)이며, 전공과목은 [별표 3]의 교사 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2011.2.28 개정)으로, 각 기준을 적용하여 표로 재구성함.

교직과목은 교사의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능력요소들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갖추는 데 목적을 둔다(최성욱, 2012). 교사의 직무(敎職)는 교육만이 아니다. 교사의 직무는 교육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도덕, 종교, 예술 등 각종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최성욱, 2012). 즉, 교직과목은 시대 상황적 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교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높여 주므로, 교원양성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교직 소양의 ‘특수교육학개론’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유치원의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전공영역에서도 다루지만 교직 소양의 필수과목이다.

또한 실습(유치원 현장실습)은 시범 및 모의 수업과 구분되는 교직체계의 독자적 영역으로 전문직 양성과정에 반드시 포함되는 필수영역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는 4학년 1,2학기에 걸쳐 1년간의 인턴십과 12주의 실습을 요구하며, 캐나다의 레이슨대학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현장실습I, II, III과 4학년의 교육실습(인턴십)을, 그리고 동경 학예 대학은 교육실습 6학점이 배정되어 있음(박은혜, 이희경 외, 2010)을 볼 때, 우리나라도 현장실습 과목의 확대를 검토해야한다. 교육실습이 강조되는 이유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무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하경표 · 김재환, 2006),

전공기본이수과목은 유치원 교사가 경험해야 할 교과 및 일반 지식 내용이다. 현재 17개 과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7과목(21학점) 이상을 선택해 개설하는 기준이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전공기본이수과목은 교직과목과 같은 공통 필수과목의 성격이 아니라 양성 대학이 개설 과목을 선택해 결정하므로 개설과목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양성대학이 기본이수과목으로 선택한 과목 이외의 과목은 유사 과목명으로 개설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의 기준은 과목명이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어서 교과 지식이나 기본 지식이 구분 없이 제시되어 있다. 현재의 기준은 종전의 기준(2009학번 입학자부터 적용)에서 ‘부모교육’이 제외된 것을 다시 포함한 것 외에 달라지지 않았으며, 2005년 입학자 기준(15개 과목)과 비교할 때 ‘유아교사론’과 ‘유아건강교육’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볼 때,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누리

과정 도입에 따른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준에 근거하여 교직과목과 전공기본이수과목의 개선안을 제시하면 <표 17>과 같다. 이 개선안은 교과부의 유치원 교원양성 정책 추진계획에 의해 표준화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수행된 유치원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결과(박은혜·이희경 외, 2010)에서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표 17> 교직과목과 전공기본이수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 개선안

구분		과목명		계	
교직	1.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6과목 12학점이상	24 학점 이상
	2.소양	특수교육학 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각 2학점이상		2과목 4학점 이상	
	3.실습	학교현장실습 I, II, 교육봉사활동 : 2학점 이내 포함		3과목 6학점 이상	
전공	4.교과	교과논리 및 논술,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및 지도법, 그 외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		3과목 8학점 이상	50 학점 이상
	5.기본 이수	기본 지식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놀이와 교육, 아동 복지, 유아교육과정, 현대사회와 유아교육, 부모교육, 유아 관찰과 평가, 유아교사론, 유아교육사상사(10)	10과목 30학점 이상	
		교과 지식	유아건강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과학교육 (8)		
	6.기타	기타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표 17>은 교직과목을 현행에서 2학점(학교현장실습 II)을 추가해 24학점으로, 전공기본이수과목의 선택 기준을 7과목(21학점)에서 10과목(30학점)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교직과 전공기본이수과목의 합계가 72학점이나, 개선안에서 74학점으로 확대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2년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전공 교과영역의 과목인 ‘교과교재 및 연구법’을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전공 기본이수과목을 기본지식과 교과지식으로 구분하며(박은혜·이희경 외, 2010), 현재의 기준에서 교직과목의 교육실습 II를 추가했다. 또한 전공과목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현대사회와 유아교육’, ‘유아교육사상사’를 추가

했으며, 교직소양 과목으로 추가된 ‘교직실무’와 교수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를 삭제했고, ‘유아놀이지도’를 ‘유아놀이와 교육’으로, ‘유아관찰과 실습’을 ‘유아관찰과 평가’로 수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자격기준에 의한 과목 이수기준에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표 17>과 같은 유치원 교사자격 기본 이수과목기준 개선안을 제안한다.

2) 양성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통해 본 전문성 제고 방안

양성기관의 책무성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현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지식중심과 기술 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양성대학의 다양성으로 인해 비동질성, 교양교육의 전문성 미비 등이 지적되며(임승렬, 2011) 기관의 다양함에 의한 질 관리 체제의 문제(김현자, 2008), 수업연한의 차이로 인한 전문성 확보의 우려 등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과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제기되었다.

양성교육과정에서 구분되는 교양, 교직, 전공과목의 운영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양과목은 대학마다 운영형태, 편성 현황 및 개설 학점 등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유치원 교사는 특정 분야의 기성 지식만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 수 없으며 여러 분야의 광범한 지식과 소양을 필요로 한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보편적 지식과 전공 지식을 겸비해 광범한 통합적 핵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신은수, 2007). 이러한 맥락에서 교양과목은 전문 직업교육의 필수적인 영역이다. 교사의 전문성과 능력은 단편적 지식이 아닌 융합적이고 총합적인 보편 지식을 통해 발휘될 수 있다. 교양과목은 저학년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교양교육이 학문적 수준이 낮고 학업이 용이한 것이라는 편견에서 비롯된다(손동현, 2010). 전문대학의 경우, 교양과목이 1학년에 편중되어 개설되어 있는 점, 과목 개설이 저조한 점, 전공심화과정에 교양과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낮은 비율로 개설된 점 등이 지적된다. 손유식(2009)은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양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으로, 대학에 교양교육과정 운영 규정이 자율화 되어 교양과목 개설을 중시하지 않는 점, 개설강좌의 다양성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는 점, 과목명이 학문표기식이고 1학년에 집중배치 되어 있음을 들었다.

교직과목은 자격기준에 의해 과목명과 학점, 성적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교직과목의 이론과목은 과목별 교수요목이 제시되어 있고(교과부, 2013) 모든 교사양성과정에 일정 수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표준교육과정인 셈이다. 22개 전문대학의 교직과목 편성현황을 보면, 모든 대학이 교육학개론을 1학년, 교육심리를 대부분이 1학년, 그리고 교육철학 및 교육사를 1,2학년에 편성했으며, 교육실습을 3학년,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대학마다 학기 편성을 다르게 하였다(이희경 외, 2009). 또한 최근에 포함된 ‘교과논리 및 논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과목은 대학마다 자유롭게 계획한 교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공과목은 기본이수과목 외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목들이 다양하다. 각 대학에 개설된 과목은 교육의 이해 및 지식,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표현 및 심미 기술, 유아연구 및 평가, 개인 및 가족·지역, 협력, 치료, 특수 등의 관련 과목이며,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보다 철학 및 심리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관련 과목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유사한 이름의 과목명(예 : 유아신체표현, 유아신체교육, 유아음악교육, 창의적 신체표현활동, 유아체육무용교육, 유아올동실기 등), 교육과정의 특성화가 강조된 과목명(예 : 생태유아교육개론, 생태유아놀잇감, 유아몸짓놀이 등), 보육교사자격 과목(예 : 아동발달, 아동문학, 영유아교수방법, 보육실습 등) 등 대학마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과목은 교사의 기초 학문소양을 높여줄 뿐 아니라 전공지식과 능력을 연결시켜 주는 융합적 성격의 교육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초등교육과 달리 유치원교육은 통합교육이므로 유치원 교사는 현대 사회의 지식과 문화를 융합적으로 이해하여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철학, 생물, 과학, 예술, 공학 등 범교과적 학문지식을 전공교과와 연계하여 다루어, 교직 인성, 학습자 이해 및 생활지도 능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정보화 소양 능력 등의 교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교양 과목의 확대와 전 학년에 걸친 과목 편성이 요구된다.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에서도 교양영역의 구분 및 과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교직과목은 표준교육과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양성대학마다 동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교수요목이 필요하며, 교육실습의 확대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과정 체제에서 각 과목이 전공과목과 연계된 순차적인 학기별 편성이 요구된다. 현재 교직과목은 과목명과 학점기준이 표준적이나 각 과목의 교재는 저자에 따라 교수내용에서 차이가 있어 무리가 따른다. 특히 ‘교과논리 및 논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유치원 교사 교육의 전문성 측면에서 합의된 교수요목이 요구된다. 또한 예비교사의 교직실습을 강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표준화 기반의 대학 및 지도교사용 실습지침서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이주헌(2010)은 교직과목을 학기별로 순차적으로 제시한 교직교육과정 표준안을 제시했는데, 교직이론은 1학년부터, 교직 소양은 2학년부터, 교육실습은 3학년이후부터 실시하는 방안이다.

셋째, 전공과목은 기본이수과목 개설의 확대, 교수요목의 공유, 유사과목의 과목명 통일, 교직과목과 연계한 과목의 순차적 배열 편성이 요구된다.⁴⁾ 각 대학은 전공과목(교과 영역 및 기본이수 과목)을 기준 범위에서 50학점 이상 자율적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그 50학점 이상에 기본이수과목들을 충분히 포함시켜 유아교육의 기본지식과 교과지식을 골고루 다루도록 요구된다. 또한 표준화한 기본이수과목의 교수요목을 적용하여 일정수준에서 교사양성교육의 동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획일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기본이수과목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양성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이나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유사한 이름의 과목들은 과목명을 통일하여 공통된 과목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에서 과목의 위계를 적용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전의 경험과 연계하여 연속 및 심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목의 성격에 따른 순차적인 배열이 요구된다. 전체적인 교육과정 편성에서 교직과목과 연계한 과목 군(cluster)을 구성하여 학기에 따라 순차적인 배열이 되도록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5. 나가며

누리과정 도입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사에 유아교육의 공교육 시대를 기록하게

4) 교직소양 및 교직실습, 전공기본이수과목의 핵심개념과 개요는 유아교육선진화사업5-유치원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개선방안(129-135)에 제시되어 있음.

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달랐던 내용을 통합하여 공통과정을 적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2년 7월부터 육아정책연구소의 주관으로 각계의 단체 대표 및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발전 포럼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미 진행 중인 누리과정에 대하여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현장 적용의 문제점, 질 관리 방안,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방안 등 여러 방면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누리과정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신속히 시행되어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시작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사를 돌아볼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커리큘럼 통합이 내용의 통합이지 이원 체제의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지도교사의 양성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커리큘럼을 교육과정으로 칭하지 못하여 새로운 용어인 누리과정을 채택할 만큼 상호 간의 합의가 중요한 현실에서, 유치원 교사 양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덧붙인다.

첫째, 유치원 교사는 수업 연한 4년으로, 그리고 교원자격 기준의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양성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은 ‘한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의 토론회에서 학제개편의 필요성 및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바 있으며(유대근, 2010), 현 정부의 수업연한 다양화 계획(교과부 보도자료 3.28.), 전공심화과정 개설확대 등 다양한 방안에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 교사는 3~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교원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방과후 교사와 구분되며, 하루 3~5시간 일과에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실천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계획안을 작성하며 놀이중심의 통합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3~5세는 0~2세와 발달적으로 구분되며, 누리과정은 공통 커리큘럼이므로 교사는 유아가 어디에 있던지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UNESCO가 ISCED의 0단계를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으로 권고한 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책임을 교육영역에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교육의 구조적 틀, 잘 훈련된 교직원, 교육과정을 들 수 있으며, 교육은 평생 학습의 차원에서 출생부터 학습자라는 인식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Bennett, 2010).

현 시점에서, 교사가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하는 곳에 따라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보육계획안을 작성하는 상황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투자비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12조에 이르며 GDP의 1%에

육박하는(문무경외, 2013) 교육 선진국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 누리과정 도입을 유아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으로 삼아 교육의 주체인 교사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이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적인 공적 제도이다. 아직 유치원 교육이 기본학제에 포함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유아학교 체제를 갖추어 유아학교를 기본학제에 포함시킨다면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이 보다 확보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2009. 11.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OECD 교육지표. 통계자료 SM 2010-06.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 교육과학기술부(2013a).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3b).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과학기술부.
- 권은희·성영혜(2012).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유아교사 양성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벤치창업연구**, 7(4), 187-200.
- 김수연(2009).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 편성실태 및 개선방안.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재조명, 제 33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및 연수(2009.8.20.), 43-68.
- 김영옥·이기숙 외(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김현자(2008). 유아교사 전문성 관련 논의의 접근 방법과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197-221.
- 나정(2001). 유아교육의 기능 변화와 유아교사 양성 정책. **한국교원교육연구**, 18(3).
- 문무경·최윤경·신동주(2013). Combin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Measures to Ensure Social Cohesion의 토론, OECD-KICCE 국제세미나 사회통합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 방안(2013.2.6.). 육아정책연구소.
- 박은혜·김수연·김희진·김희태·박정선·이대균·이희경·조부경·조형숙·황해익·김미석·김은영(2010).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체제 개선 방안,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 5. 교육과학기술부.
- 박은혜·신은수(2012). 2011 국제표준교육분류 0단계(ISCSD 0)에 기초한 누리과정의 유아교육제도로서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16(2), 341-356.
- 손동현(2010).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균형과 수렴에 관해. **한국교양교육연구** 4(2), 19-27.
- 손유식(2010).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양교육과정 편성실태 및 개선방안.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재조명, 제 33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및 연수(2009.8.20.), 9-20.
- 신은수(2007).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 개선 요구 및 지원 과제. 교육력제고를 위한 교사 자격기준 개선 정책 워크숍(2007. 10.10). 한국교육개발원. 93-121.

- 양옥승(2002). 유치원 교사 양성체제와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 **한국교원교육연구** 19(1).
- 양한주 외(200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실태 평가방안 연구. 연구 제 2008-1 호. 한국전문대 육협의회.
- 염지숙(2011). 교육과정 실행주체로서의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유아교육논집** 제15권 제6호, 295-310.
- 유대근(2010).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 단일화 방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2010년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및 영유아교육학회 토론회**(2012. 2.28.), 38-55.
- 이주현(2010). 전문대학 3년제 유아교육과 교직과정에 관한 연구 : 편성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연구**, 13. 17-32.
- 이희경(2010).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현황과 학제개편의 필요성.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2010년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및 영유아교육학회 토론회** (2012. 2. 28.), 18-35.
- 이희경 · 김성수 · 손유식 · 이주현 · 김수연 · 김영희 · 윤혜원 · 장현주(2009). 2009년도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육과정개발 연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임승렬(2011). 유아교원 양성기관의 책무성- 현실진단과 개선 방안. **59차 교원교육 학술대회**, 29-53.
- 전홍주 · 박은혜(2007). 유아교사 측면에서 본 유아교육 학제 개편 방안. **유아교육연구** 27(1). 309-327.
- 조형숙 · 이경민(2004).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확립방안. **유아교육학논집**, 8(4), 219-237.
- 최성욱(2012). 교직과목 체제의 재구성 : 방향과 과제. **교육원리연구**, 17(2), 49-70
- 하경표 · 김재환(2006). 유아교사 양성체제 개선 방안. **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10 (4-1), 9-38.
-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1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 Bennett, J.(2010). 돌봄과 교육 함께 하기. 국제연구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안 진단. 2010년 **PECERA · OMEP 국제 세미나**(2010.4.24.). 22-33.
-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2.
- 교육통계 [http : //cesi.kedi.re.kr/](http://cesi.kedi.re.kr/)

2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이 미 정 (여주대학교 교수)

1. 서 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교사의 자격체계, 양성 교육과정, 근무환경 및 처우문제, 현직교육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포괄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주제를 한 번에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므로, 본고에서는 교사의 자격체계와 양성교육과정 등의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경우 원장, 교사, 기타 보조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본 원고에서는 ‘교사’의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보육교사 자격의 문제와 연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성과정일 것으로 판단하여, 최초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인은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체계를 고찰하면서 최대한 객관적 입장을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개방형 자격취득체계로 인해 보육교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그로인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로써 본고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보육교사 자격체계의 어려움을 짚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제기된 문제점들은 정식 대학(교)의 정규과정을 통한 배출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며, 정규 대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자격체계는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한 유치원자격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큰 문제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규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보다 많은 수의 보육교사 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 묶음으로 취급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최근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유보 통합의 개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위 통합 교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배제하였음을 밝힌다. 본 누리포럼의 주제가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제고 방안’이기 때문에 고찰의 범주를 제목에 충실하게 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에 관한 본 논고가 유보통합 논의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추후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보육교사의 자격체계

1)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육교사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에 제시되어 있으며(표1참조), 제21조 2항의 규정대로 2005년 이후 보육교사의 등급은 1, 2, 3급으로 구분된다(표2참조). 자격기준의 요건에 학력, 전공 경력 등을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방형 교과목 이수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자격취득이 가능한 최초의 학력은 고등학교,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표 1〉 보육교사의 자격체계

	법	교사의 자격
보 육 교 사	영 유 아 보 육 법	〈영유아보육법 (2013.3.23.)〉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1)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기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한다(표3참조).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이며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보육진흥원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심의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보육교사 2급은 대학 등을 졸업한 자, 보육교사 3급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표 3〉 보육교사 자격검정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8>
-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1.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

3.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1) 보육교사 2급 양성교육과정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1항 <별표4>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6개 영역에서 12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자격기준은 2012년 8월 1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4).

<표 4>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2005년~2013년)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 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 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표 5>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2014년 3월 1일 이후)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 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학지도, 아동 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2)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과정

보육교사 3급의 검정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에서 6영역 25과목 6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이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5, 표6참조).

〈표 6〉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교과목 및 학점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과목(20학점)필수
영유아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7과목(17학점)필수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2과목(4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5과목(13학점)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필수
계	25과목(65학점) 이상	

3)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보육실습에 관한 규정은 보육교사 2급과 3급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2013년 3월부터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습인정시간을 한정하고 실습지도 최대 인원
에 대한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실습 기준을 더욱 강화하였다.

〈표 7〉 보육실습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 나.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다. 실습 인정시간 :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라.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외국의 영유아보육교육 담당교사 자격조건과 양성과정¹⁾

프랑스의 경우 준교사가 아닌 정규보육전문가나 영유아교사는 3년 이상의 교육이나 국가시험을 요구하고 있고, 모성학교 교사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어 정규 교사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양성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연령별 이원화체계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강한 영아 보호/유아교육이라는 이원화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 영유아의 건강한 전인발달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복지와 보호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표8 참조).

1) 이 절의 내용은 한국아동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의 내용을 참고 요약하였으며, 〈표8〉~〈표13〉은 안재진(2013)에서 인용함.

〈표 8〉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 교육교사 관리체계

교사유형	아동연령	근무장소	양성과정(기간)	담당업무
보육 전문가	0~6세	집단 보육기관 시간제 보육기관 아동정원	1) 보육전문가 양성학교 (3년) 2) 간호사/사회복지사 자격증+양성학교 1년 과정(국가고시, 논문, 구두시험 합격)	보육기관 원장직
준보육 전문가	0~6세		1) 고등학교 때 영유아보육 실무자격증 취득 2) 일반 고등학교 졸업 + 전문양성학교(1년)	영유아돌봄 보육전문가 및 간호사의 보조역할
영유아 교사 (E,J,E)	0~6세		6학기 양성과정(5학기 150점 학점 이수 + 자격시험 30학점)	보육기관 내 교육활동 조정
가정 보육모	0~6세	아동 또는 가정보육모의 집	모자보건국(PMI)의 인증 후 60시간 의무 교육(첫 2년 내 20시간), 5년 후 재인증	가정내 돌봄
모성학교 교사	3~6세	모성학교 초등학교	학사학위+교원양성전문대학원(UFM 2년)	영유아교육

영국은 전체 8수준의 교사 자격체계를 구성하고 보육기관과 유아기관 종사자의 약 80%가 3수준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총 8단계의 자격체계를 우리나라의 자격체계와 직접 비교 하는데는 무리가 있지만, 유아기관 종사자의 42%가 6수준의 학사학위를 요구한다. 이때 6수준의 전공은 아동학, 교육학, 영유아교사양성 과정의 학사학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6수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 및 아동학 전공 출신의 보육교사나 유아교육 전공의 유치원 교사 정도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의 경우 보육과 교육이 노동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두 부처가 교육고용부로 통합되었고, 2007년 아동학교가족부와 기술혁신사업부로 분리되어 보육과 유아교육은 함께 아동학교가족부 업무로 소속되었고 2010년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관할 부서명이 교육부라 할지라도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영유아 보육교육은 명실공히 보육과 유아교육이 통합된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고, 이는 영유아 시기의 교육보육은 가족, 복지, 보호 및 교육의 복합적 개념의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표9참조).

〈표 9〉 영국의 영유아 보육 교육교사 관리체계

등급	자격기준	기관별 자격현황	근무여건
1수준 (초급)	중등교육자격시험(GCSE) D-G 등급, 초급 일반진로자격시험(GNVQ), 1수준 국가직업 자격(NVQ)	가정보육모의 59%	서비스 유형에 따라 주당 28시간~34시간 근무
2수준 (중급)	중등교육자격시험(GCSE) A-C 등급, 중급 일반진로자격시험(GNVQ), 2수준 국가직업 자격(NVQ)	보육기관종사자 79%	
3수준 (고급)	A 수준, 직업 A 수준(고급 일반진로자격시험), 3수준 국가 직업자격(NVQ)	유아기관 종사자 82%가 3수준 이상	
4수준	전문가과정(Higher level qualifications) 고등국가학위(BTEC Higher Nationals) 4수준 국가직업시험(즉, 영유아보육의 4수준 자격증)		
5수준	전문가과정(Higher level qualifications) 고등국가학위(BTEC Higher Nationals) 5수준 국가직업시험(즉, 고등교육 및 놀이분야 학위, 영유 아기초과정 학위)	가정보육모의 4% 보육기관종사자 10%	
6수준	학사학위(아동학, 교육학, 영유아교사양성과정)		
7수준	석사학위, 교사자격인증석사(PGCE), 통합센터리더십, 국 가전문가자격증(NPQICL)	유아기관종사자 42%가 6수준 이상	
8수준	박사학위		

미국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적체계가 매우 약한 국가이고 주마다 그 규정에 차이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에서 영유아교사에게 CDA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고, 그 배경지식으로 아동학, 유아교육학 등을 포괄하고 있다(표10참조). 특히 최근의 규정 변경에 따르면, 헤드스타트 교사 자격을 2년제 혹은 4년제(전체의 1/2)로 상향조정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미국의 영유아 보육 교육교사 관리체계

유형	근무장소	양성기관(기간)
가정보육 종사자	아동의 집 또는 시터의 집	대다수의 주에서 아무런 사전교육도 요구하지 않음
유아교사	유아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모든 주가 최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 20개의 주 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배경 요구, 46개 주에서는 CDA 자 격증 사용

유형	근무장소	양성기관(기간)
헤드스타트 교사	헤드스타트 센터	2007년 재인준된 헤드스타트법에 따르면 2013년까지 모든 헤드스타트 교사들은 2년제 대학 졸업자여야 하며, 이 중 절반은 4년제 졸업장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
공립학교 Pre-K 교사	공립학교 Pre-K 프로그램	공립학교의 다른 초중등 교원과 마찬가지로 최소 4년제 학위가 요구되나, 별도의 유아교육 관련 학위나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음

스웨덴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단일체제로 완전 통합한 국가로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절반정도가 대학졸업자들이고 보조교사나 가정보육모에게 요구되는 자격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영유아교사나 레크레이션 교사는 학사학위가 요구된다. 특히 2011년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유형의 교사와 동일한 규제의 적용, 교사자격의 명료화, 교사인증과정의 창안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정규 영유아교사와 보조교사 등의 자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한유미, 2013; 표11참조).

핀란드 역시 보육시설과 유아학교,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과 자격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경우 대학(3.5년)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아학교 교사는 유아교육 전공이나 초등교사와 같은 석사학위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유초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표11참조). 핀란드에서의 보육은 보호와 교육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1/3 이상은 교육학 학사나 사회복지 혹은 교육학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한다.

〈표 11〉 스웨덴, 핀란드의 영유아 보육 교육교사 관리체계

국가	유형	근무장소	양성과정
스웨덴	보육교사	보육시설, 개방형 보육시설 유아학급, 레저타임센터	대학교육 (3.5년)
	보조교사	보육시설 (레저타임센터 근무 불가)	고등학교(3년)에서 아동 및 레크레이션 전공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성인교육기관(1년) 과정 이수
	가정보육모	자신의 집	공식교육은 받지 않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관 훈련을 받음
	레크레이션 교사	주로 레저타임센터, 보육시설	대학교육(3.5년)

국가	유형	근무장소	양성과정
핀란드	보육교사와 원장	보육시설	학사학위(3년)
	보조교사 (간호조무사 또는 부모)	보육시설과 유아학급	보건학교나 직업학교 졸업(3년)
	가정보육모	대개 보육모의 집	고용 전 몇 주 동안 훈련과정 이수 2005년부터 직업학위 취득이 권장됨
	유아학교 교사	유아학교	대학에서 유아학교 교육학 또는 초등학생 교사 (석사학위자)
	사회교육가	보육시설 외 다양한 기관 (청소년 및 노인관련)	기술대학(3년)에서 유아교육 과목 최소 55학점 이수

일본에서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사를 모두 보육자라 부르고 있으며,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보육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특히 최근들어 보육의 수요증대와 양질의 보육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가 반영되어 보육자 양성시설이 4년제 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국공립 보육사의 신분이 각각 교육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신분보장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보육사의 경우 보육사 양성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보육사가 승급하는데 국가시험을 거치도록 체계화되어 있어, 보육의 전문성확보와 질관리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경희, 2013; 표12참조).

〈표 12〉 일본의 영유아 보육 교육교사 관리체계

교사유형	종류	양성과정
유치원 교사	전수면허장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교과과목(6학점), 교직과목(35학점), 교과 또는 교직과목(34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수여
	1종 면허장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교과과목(6학점), 교직과목(35학점), 교과 또는 교직과목(10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수여
	2종 면허장	전문학사(전문대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과과목(4학점), 교직과목(27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수여
보육사	양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후 보육사 양성학교(대학, 전문대학, 전수학교, 양성기관 등)에 입학하여 68학점 이상 취득
	보육사 시험 합격	대학에 2년 이상 재학하면서 62학점 이상 취득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동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5년 이상 아동보호에 종사한 사람이 연 1회 실시되는 보육사 시험에 합격하여 취득

교사유형	종류	양성과정
가정 보육사		시정촌의 장이 실시하는 연수를 수료한 보육사 또는 그 외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보육을 실시하는데 적당하다고 시정촌의 장이 인정한 사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유아보육 교육을 담당하는 영유아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교육의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 관계없이 영유아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와 복지, 가족, 아동 지원의 보다 포괄적 개념을 복합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자격기준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더욱 시급한 것은 대학의 정규과정을 통해 배출된 교사와 여타의 다양한 자격취득 경로를 통해 배출된 교사 간의 자격의 구분과 승급의 조건 강화 및 역할의 구분이다. 따라서 정규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보육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와의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격체계의 세분화 및 강화과정은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표 13〉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교육교사 관리체계

구분	유형	양성과정(기관)
유 치 원	유치원 원장	유치원의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유치원 원감	1)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3년 이상의 교육 경력+소정의 재교육 2)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6년 이상의 교육 경력+소정의 재교육
	유치원 수석교사	유치원 교사 자격증+15년 이상의 교육경력+수석교사과정 연수 수료자
	유치원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3년 이상의 교육경력+소정의 재교육 2)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석사(유치원 교육과정 전공)+1년 이상의 교육경력
	유치원 정교사 (2급)	1) 대학의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 +2년 이상 교육경력 +소정의 재교육
	유치원 준교사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유치원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유아교육 관련분야 전공자 2)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유아교과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

구분	유형	양성과정(기관)
어 린 이 집	어린이집 원장	1) 보육교사 1급+2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 경력 2) 유치원 정교사(2급)+5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 3) 초등학교 정교사+5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 4) 간호사 면허+7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 5) 국가 또는 지자체 7급 이상 공무원+아동복지업무 5년 이상 경력
	가정어린이집 원장	1)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1)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면허+5년 이상 아동간호업무 경력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해당자 1)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 전공자 2)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자 3)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이수자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과정+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승급교육 이수 2) 보육교사 2급 자격+관련 대학원 석사학위+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승급교육 이수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학점, 35학점 이상, 보육실습필수)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14.3부터 17과목, 51학점 이상으로 강화) 2) 보육교사 3급 자격+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승급교육 이수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졸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25과목, 65학점 이상이며 각 과목당 평가점수 70점 이상, 보육실습필수)

5.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²⁾

보육교사 자격증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된 이후 200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서 발급되기 시작하였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의 교부는 2006년 12월 31일부 터의 일이다. <표 14>에 제시된 바처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급된 보육교사 자격증은 789,567명에게 교부되었으며, 원장자격증을 합하면 보육자격증의 국가자격증 전환 이후 995,107명에게 교부되어 보육자격증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실로 엄청난 수라 할 수 있으나, 이들의 현직 종사비율이 28.6%에 그치고 있어 수급 조절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 많은 인원에게 자격증을 교부했음에

2)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통계자료는 기본적인 보육통계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자료를 인용했음을 밝힌다.

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는 현재도 보육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니 이는 보육교사 자격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육교사 급별 자격증 교부 현황을 보면, 2급이 309,452명, 3급이 30,652명으로 3급이 2급에 비해 1/10 수준인 것처럼 보이나 이는 최초 자격증 교부 현황이 아니므로 현재 보육교사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3급에서 승급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직종사비율이 3급 취득자가 52.9%로 2급 취득자 31.3%에 비해 더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현장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중 최초 자격증이 3급인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할 뿐이다. 3급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을 지니므로 이는 보육인력 전체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급 보육교사 종사율이 높아진 이유는 보육교사 처우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으므로, 자격체계의 개선 방안 역시 교사 처우 문제와 함께 연동하여야 할 것이다.

〈표 14〉 보육관련자격증 취득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

(2005.4.25. - 2012.12.31. 기준)

단위: 건, 명, %

구분	자격증교부건	자격증 취득자(A)*	현직종사자(B)	현직종사자비율 (B/A)
계	995,107	863,403	247,110	28.6%
어린이집 원장	205,540	190,514	42,164	22.1%
보육교사	789,567	672,889	204,946	30.5%
1급	344,278	332,785	91,736	27.6%
2급	369,681	309,452	96,984	31.3%
3급	75,608	30,652	16,226	52.9%

* 자격취득자: 중복 취득 건(승급, 재교부)을 제외한 실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함
출처 : 김의향(2013).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관리와 처우개선 방안.

보육교사 자격증이 교부된 이래 현재까지 보육의 질적 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제기된 사항은 보육교사 교육훈련원을 통해 배출되는 보육교사 3급의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격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의 배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육교사 3급 배출 현황과 사이버를 통한 자격증 교부 현황을 보면 〈표 15〉과 같다.

최근(2012년, 2013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자의 출신 양성교육기관을 살펴보면(표16 참조), 4년제 대학과 2,3년제 전문대학 출신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원격(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출신이 5.74%, 학점은행을 통한 자격취득자가 34.46%로 이들을 합하면 40%에 이른다. 그리고 원격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2급 취득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보육교사 교육훈련원을 통한 보육교사 3급 자격증 교부는 2009년을 정점으로(12,029명 발급) 계속 감소하는 추세(2013년 7088명 발급)이지만(김의향, 2013), 보육교사 교육훈련원을 학점은행제 유형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아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원격(사이버)대학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의 문제점은 수급조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분에서도 새로운 논점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표 15〉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자 출신 양성교육기관 현황

(2013.3.25. 기준) 단위: 명(%)

구 분	보육교사 2급		계
	2012년도	2013년도	
대학원	17(0.04)	2(0.01)	19(0.02)
대학교	4,900(10.83)	3,755(10.21)	8,655(10.55)
전문대	21,503(47.54)	18,854(51.27)	40,357(49.21)
원격(사이버)대학	1,593(3.52)	1,206(3.28)	2,799(3.41)
학점은행	16,121(35.64)	12,141(33.01)	28,262(34.46)
방송통신대학	1,095(2.42)	817(2.22)	1,912(2.33)
소계	45,229(100.00)	36,775(100.00)	82,004(100.00)

출처 : 김의향(2013),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관리와 치우개선 방안.

또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자의 학과별 자격취득 현황(2012-2013년)을 보면, 보육, 아동관련학과 및 유아교육과 출신이 54.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학과 출신은 28.56%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단일학과인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간호학과 및 가정계열학과를 포함하는 기타 학과가 15.84%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보육 아동관련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학과중심의 자격증 발급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표 16〉 보육교사 2급 취득자의 학과(전공)별 자격증 취득 현황

(2013.2.25. 기준)

단위: 명

학과 ¹⁾	보육교사 2급		계
	2012년도	2013년도	
보육(학)과	2,912(6.44)	2,783(7.57)	5,695(6.94)
아동복지(학)과	1,988(4.40)	1,637(4.45)	3,625(4.42)
아동관련학과	11,804(26.10)	8,969(24.39)	20,773(25.33)
유아교육(학)과	7,335(16.22)	7,005(19.05)	14,340(17.49)
사회복지(학)과	13,308(29.42)	10,115(27.51)	23,423(28.56)
기타	7,291(16.12)	5,700(15.50)	12,991(15.84)
미기재 ²⁾	591(1.31)	566(1.54)	1,157(1.41)
소계	45,229(100.00)	36,775(100.00)	82,004(100.00)

1) 학과분류 기준

- ① 학과명에 '보육'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학과(예: 유아보육과)는 모두 '보육학과'로 분류
- ② 보육학과를 제외한 학과 중 학과명에 '아동'과 '복지'가 함께 포함된 학과를 아동복지학과로 분류. 이때 '아동'과 '복지' 사이에 다른 단어가 포함된 경우(예: 아동가족복지과)도 아동복지학과로 분류. 단, 학과명에 '아동'과 '복지' 중 한 단어만 포함한 학과는 아동복지학과에 포함시키지 않음.
- ③ 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를 제외한 학과 중 학과명에 '아동'이 포함된 학과와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유아'가 포함된 학과를 아동관련학과로 분류
- ④ 대학(교) 졸업 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유아교육(학)과'만 포함.
- ⑤ 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관련학과 및 유아교육학과를 제외한 학과 중 학과명에 '사회복지'가 포함된 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분류. '사회'와 '복지' 사이에 다른 단어가 포함된 경우(예: 사회사업복지, 사회복지행정)도 사회복지학과에 포함함. '사회'와 '복지' 중 한 단어만 포함한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에 포함하지 않음.
- ⑥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들은 기타로 분류. 간호학과, 가정학과, 가정관리학과 등이 포함됨.

2) 시스템 미입력자

출처 : 김의향(2013).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관리와 처우개선 방안.

6. 현행 보육교사 자격체계 고찰

1) 보육교사 최저 학력의 문제

현행 보육교사 자격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학력의 문제이다.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3급→2급→1급→원장까지 승급하는데 별도의 진입장벽이 전혀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육 현장에 진입하는데는 고졸학력이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1990년에 33.3%이었으나 이후 매년 높아져 2004년에 80%, 2010년에는 여성 82.4%, 남성 81.6%라고 보고 되

고 있어(2010.3.7. BBS시사; 김명순, 2010에서 재인용), 매우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육교사 학력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고려해 보아야할 부분인 듯하다.

우리나라만큼 대학입학률이 높지 않은 외국의 경우에도 보조교사가 아닌 정규 영유아 교사의 학력은 대부분 2년제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가 많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경우 3년~3.5년의 대학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육교사도 2년제 이상의 학위과정 졸업자를 요구하거나 일정기간 보육경력자에 대한 보육사 시험제도를 통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이 그다지 높다고 평가되지 않는 미국의 경우도 모든 헤드스타트 교사들은 2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여야 하며, 보육교사에 대해 46개주에서 CDA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지역 성인의 평균학력보다 더 높은 학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명순, 2010; 황옥경, 2013; 신유림, 2013; 한유미, 2013; 장경희, 안재진, 2013).

다른 한편, 보육교사의 최저 학력이 고졸인 점은 교사 처우문제와도 직접 연관되고 결국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육교사 최저 학력이 고졸이기 때문에 전체 보육교사의 최저학력은 고졸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고졸여성’의 평균인건비를 기준으로 상정되어 단순노무직의 인건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유치원 교사의 최저학력은 전문대졸이므로 ‘전문대졸 여성’의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책정의 차이가 표준보육단가와 유치원 표준교육비 단가에 영향을 주어서 표준보육비 단가와 표준유치원교육비 단가의 격차를 만들어 내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낮은 표준보육단가는 최종적으로 보육의 질과 보육환경의 질을 낮추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최저학력을 상향조정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체계에 대한 개혁과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개방형 학점이수제의 한계

보육교사 전문성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취득 방법은 개방형 학점이수제에서 학과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전공이나 학과에 관계없이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필요 학점이 단지 35학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2014학년도부터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할지라도), 자격취득이 너무 쉬워서 매년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학과의 수는 엄청나게 많다. 보육교사 2급의 경우 2009

년 현재 전국 309개 대학의 712개 학과에서 배출되었고, 한 과에서 최대 794명까지 한해에 배출되었다는 보고는 매우 충격적이다(김의향, 2009).

사실 학과제로 제한해야하는 당위성과 주장은 늘 제기되어오고 있는 매우 오래 반복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기 전에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잠시 몇 년 동안 보육교사자격증도 보육과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학과 중심제도로 운영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영유아보육법의 전문개정이 이루어지던 2005년 당시 4년제 대학의 학생모집 방법이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변경되면서 전국 보육관련 4년제 전공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학점이수제도로 변경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4년제 대학 신입생 선발이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보육교사 자격취득도 관련학과 중심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으므로, 학과제로 제한하는 일은 전문성 강화에 매우 시급한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개방형 학점이수제의 경우, 보육과 무관한 여타의 전공생들이 보육에 대한 정체성이나 예비보육교사로서의 사명감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손쉽게 보육현장으로 진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물론 규제완화의 맥락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같이 개방형 학점이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자격증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각의 자격증은 실제 전문적인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들어 사회복지사2급은 개방형 학점이수제로 취득이 가능하나 정작 사회복지 현장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1급이며, 1급은 국가시험이나 사회복지 석사학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공자만이 직업 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 고졸 보육교사 3급으로도 원장까지 승급하는데 아무런 진입 장벽이 없는 자격증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유일하지 않을까 한다.

학과제로 변경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급 조절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육인력 100만명 배출을 앞두고 있지만, 보육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육교사 구인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현재의 자격증 발급 체계는 핵심학과 중심으로 자격증 취득을 제한한다면 다른 전공생들이 여유자격증으로 취득하는 인원을 통제할 수 있고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일조할 것이다. 현재의 자격제도는 누가 어느 학과에서 몇 명이나 보육교사자격 훈련을 받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이며, 사후에 자격증 발급을 통해서만 그 수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수급 조절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나 개발과정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보육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보육·아동관련학과를 핵심학과로 하는 학과 중심제로의 전환은 교사 전문성을 논하는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3)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교육훈련원 등을 통한 자격취득의 문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육교사의 질적 문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장이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훈련원의 폐지에 관한 논의였다. 교육훈련원은 고졸 학력과 맞물려서도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앞의 본문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최근에는 보육교사 훈련원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의 수보다 학점은행제와 원격(사이버)대학에서 배출되는 수가 훨씬 많아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 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배출되는 보육교사 2급의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는데, 과연 학점은행제나 원격 대학의 교육과정이 보육교사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한번에 보육교사 1명을 배출하는 학과의 경우에도 그 교육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되었는지 의문이지만, 한번에 온라인으로 수천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시스템에서 과연 보육교사의 전문적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학점은행제 등은 그야말로 수많은 학생을 동시에 필요 교과목만 이수시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니 이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양성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없는 질적 전문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남게 된다. 특히 원격 대학과 학점은행제에 등록한 수강생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취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이들의 보육실습은 얼마나 충실할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원격(사이버)대학과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한 자격취득제도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원격(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사 자격증의 발급이 교사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유치원 자격증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자격증의 경우 유일한 사이버 교육제도인 방송통신대학의 경우도 자격제한을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음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을 통한 교사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시점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의 발급도 같은 차원에

서 고려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부처간 협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핵심학과 중심의 폐쇄적 학과중심제로 전환하고, 원격(사이버)대학과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해 배출되는 교사들은 준교사 혹은 보조교사로서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들이 정교사로 승급할 때는 일정기간의 현장 경력 이후 국가시험 제도를 통한 승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정교사와 준교사의 역할과 보수체계 등의 구분 및 진입 경로의 구분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양성교육과정의 교과목 문제

2014학년도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에 필요한 교과목을 35학점에서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04년 이후 그나마 어느 정도의 상향조정이 이루어 진 것은 다행이나 지금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교과목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상향조정되어 왔다. 최근 2, 3년 사이에도 몇 차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렵게 51학점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여전히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일련의 진행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의 <표5>에 제시하였듯이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인 17과목 51학점은 모두 전공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목으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교과목 50학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공과목 50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2013학년부터 적용, 이희경교수 16쪽 참고)이므로, 교직과목을 제외하면 보육교사 자격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상향 조정된 보육교사 교과목은 영아발달과 보육교사론을 보육필수로 추가하고,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장애아 지도를 추가하였으며, 영유아교육영역의 일부 교과목을 분리하였다. 이렇게 상향조정된 이유는 시대적 요구와 보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영아, 장애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교사로서의 역할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며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예비보육교사의 전문성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김의향, 2013) 있고 일차적으로 51학점 상향조정이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표 17〉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의 양성교육과정 비교

구분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양성기관	보육교사교육원(1년제-고졸이상),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원(24주이상-고졸이상),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전공	지정과목 개설학과	유아교육과(100%), 아동학관련학과(입학정원의 10%)	지정과목 개설학과, 대학원 졸업의 경우는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이수학점	전공 12과목 35학점이상(2013년 까지) 전공 17과목 51학점이상 (2014년부터)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총 72학점 이상	대학 : 전공 14과목 42학점이상 대학원 : 전공 8과목 24학점이상
자격인정	관련교과목 이수제	학과제	2급이하 : 관련교과목 이수제 1급 : 국가시험제
현장핵심 인력 진입	3급부터 핵심보육인력 진입 용이 (고졸부터 가능)	정교사2급부터(전문대 이상) 가능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1급부터 핵심인력 진입

5) 교직과목 추가 문제

보육교사 자격 이수교과목에 교직과목을 추가해야 하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보다 원론적인 보육학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된다. 보육학의 모학문이 교육학인지 가정학인지 사회복지학인지, 아니면 이 모든 학문에 뿌리를 둔 새로운 파생 실천학문인지에 대한 숙고로부터 시작하여 전공 이외에 어떤 과목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찰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과정의 토대위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연 교직과목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아동 권리와 복지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필요한 과목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깊은 심사숙고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유치원 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에 교직과목이 포함되므로 보육교사도 반드시 교직과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유아교육은 철저히 그 학문의 뿌리를 교육학에 두고 있으며 대상 연령이 다를 뿐 교육의 체계와 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유치원교육을 고찰하고 바라본다. 그러므로 교직과목을 배제한다는 것은 학문의 뿌

리를 벗어나는 일로 생각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에 요구되는 교직과목이 과연 모두 유치원 교사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OECD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사업의 결과 보고서인 Starting Strong II(2008), Starting Strong III(2012)에 의하면,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호를 모두 중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교육에 몰입하는 나라의 경우 복지와 양육의 개념을 보다 많이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 교과목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보강 될 부분은 교직과목의 일부와 복지와 양육과 보호의 개념이 적절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보육실습교과목

실습 교과목은 해당 직종의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실제 현장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으로 양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실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2014학년도부터 보육실습 교과목이 3학점으로 조정되고, 세부 지침이 매우 강화된 점 등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보육실습 교과목의 인정 조건이 더욱 강화된 근본적인 원인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개방형 학점 이수제이면서 학점 은행제나 원격(사이버)대학 교육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습 교과목의 엄격한 통제와 실행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대학의 핵심 전공학과 중심으로 자격체계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실습을 통한 보육교사 전문성 확보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보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실습 어린이집을 보육시설평가인증 통과 시설로 한정한다든지, 보육실습기관 원장과 지도교사는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 지도(한국보육진흥원, 2013)’ 지침 등 관련 강의를 수강한자로 한정하는 등의 후속 조정 조치가 계속된다면 보다 충실한 실습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육실습은 0~5세 영유아에 대한 종일제 보육의 제공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교사들의 실습 교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집을 제외한 여타의 시설(예,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에서의 실습이 보육실습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이는 보육계에서도 이미 동일한 입장인데 법 조항 개정 시 관련 부처간의 행정적 승인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유치원실습을 어린이집 보육실습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이 조항의 개정이 매년 걸림돌에 부딪치고

있다면, 동일한 논리로 어린이집에서의 실습도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실습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혹자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닌다.

7)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4년제 교육과정 전환 문제

현재 보육교사 양성은 보육교사교육원(1년제-고졸이상), 2,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등 각종 기관에서 각기 다른 수업연한과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 보육교사가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는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의 보육교사 양성교육체제는 수업 연한과 교육과정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최소한의 교육내용의 표준화도 확보하기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일정 부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보육교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으면서도 현장에서는 인력란에 시달리는 수급조절의 통제를 피하면서도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조건적인 4년제로의 전환은 고려해야할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2,3년제 유아교육과를 중심으로는 일괄 4년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지난 수년간 있어왔고 당사자들 간의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 중요한 점은 유아교육과의 경우 4년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유아교육과의 경우 2,3년제 뿐만 아니라 4년제 유아교육과도 졸업후 대부분의 졸업생이 유치원 현장으로 취업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달리, 보육교사의 경우 2,3년제 보육·아동관련학과 졸업생이 거의 대부분(90% 이상) 어린이집 현장으로 취업하고 있는데 비해 4년제 아동관련 학과 졸업생의 경우는 어린이집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졸업생의 10%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재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2,3년제 보육·아동관련학과인데, 누리과정 담당 교사에게 한해 4년제 졸업자로 한정하고자 하는 작금의 논의와 움직임은 아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일괄 4년제 전환의 논리는 현재 정규 대학에서 핵심 학과 중심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배출하고 있는 2, 3년제 보육·아동관련학과에 대한 주무부처의 4년제 전환 약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8) 0~5세 통합의 개념

육아정책연구소로부터 의뢰받은 본고의 주제는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이다. 물론 이 포럼이 3~5세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논하는 누리발전포럼이기 때문에 3~5세 누리과정에 한정하여 고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영아기와 유아기를 따로 떼어서 고찰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은 연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학제가 시작되기 전 영유아 보육 교육은 발달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특히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생의 초기의 상대적 중요성에 기초해볼 때, 영아기는 유아기 못지 않게 발달적으로 중요하다. 어찌보면, 영아들은 아직 의사소통 능력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서의 영아기 담당 교사는 더욱 강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을 겸비해야 한다. 또한 영아기 발달은 유아기 발달과 연계되어 있어 영아기 보육교육에 대한 바른 전문성을 갖출 때 유아와의 상호작용도 더욱 충실해 질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결코 말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의 전문성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이런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유지하면서 우수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보장된 처우조건이 병행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 과정은 영아기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0~2세, 3~5세로 분리되고, 3~5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유아기교사가 영아기 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학문적 설득력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유아기 교사의 전문성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영아기 교사의 전문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누리과정에 적용되는 교사전문성 확보에 대한 모든 논의는 영아기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0~5세 영유아 정교사의 전문성과 처우는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정교사 제도와 함께 보조교사 및 준교사 제도를 병행하는 장치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전문적 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9)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학점 하한선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은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 여부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학점의 제한은 없다. 학점의 제한은 오직 보육실습 교과목(80점 이상 취득시

인정)에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목에서 최하위의 학점을 받아도 그 교과목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는데, 첫째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목의 이수보다 그 과목에서의 성취 수준이 더욱 중요한데, 이에 대한 담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학업 성취도가 최하위여도 상당수의 학생에게 F학점을 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결국 학점의 하한선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전문성 확보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 문제점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생도 보육교사 자격증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 자격증의 발급 대상은 유아교육과(100%)와 일부 아동관련학과(10%) 입학생에 한정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일정학점(전공, 교직 75점 이상) 이상이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즉 유치원 교사 자격증은 학과제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학점으로도 통제를 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유아교육과에서는 가능한한 입학생 전원에게 유치원자격증을 주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고, 과거 일부 학교의 유아교육과에서의 학점 인플레이 현상의 심각성이 논란이 될 정도였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졸업자들의 학점은 b학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유아교육과 입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출신 중 유치원 교사 자격증 미취득자는 극단적인 성적최하위자인데, 문제는 이들도 보육교사 자격증은 아무런 문제없이 취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점 하한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적 최하위자도 모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결국 보육교사의 경우 취득 학점 하한선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육교사 자격증의 권위와 전문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경우도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최소학점 기준(예, 전체학년 평균성적 80점 이상)을 제시하여 학업 성취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의 보육교사 진입을 초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의 모색

이상으로 본인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교사의 측면에

서 접근해 보았다. 이를 기초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므로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현재 상황에서 보육교사 최저 학력은 최소한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고졸 학력 보육교사제도는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정교사/ 준교사/ 보조교사 등의 진입 경로의 다원화를 고찰해 볼 수 있으며, 준(보조)교사 등이 정교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는 서로 다를 필요가 있고, 일정수준의 현장 경력과 국가시험 제도의 마련을 제안한다.
2. 개방형 학점 이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학과 중심의 학과 중심제로의 자격취득 경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핵심 관련 학과는 보육, 아동관련 학과 및 유아교육과 등으로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학과 중심제를 통한 교사 전문성 훈련과정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다.
3.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훈련원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의 등급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규(전문)대학의 핵심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새로운 자격체계의 마련이 요구되며,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훈련원, 혹은 핵심관련 학과가 아닌 기타 전공생의 기존의 학점이수제도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은 준교사 및 보조교사 등으로 규정하여 그 역할의 구분이 요구된다.
4.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교과목은 향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의 개발이 요구된다.
5. 현재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에 교직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담당해야 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공통 교과목의 선정이 요구된다. 즉, 추후 보육교사에게는 일부교직과목의 추가가, 유치원 교사에게는 복지와 양육의 개념을 포괄하는 교과목의 추가가 요구되며, 명실공히 영유아 보호와 양육의 개념에 적절한 공통교과목의 개발이 요구된다.
6. 보육실습 교과목의 내실화와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추후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실습내용 내실화와 균질화를 위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실습기준과 매뉴얼의 마련이 요구된다.

7.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의 4년제 교육과정 전환의 문제는 주무부처 간의 협력적 논의과정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2, 3년제 보육관련 학과에 대한 4년제 전환승인은 유아교육과의 4년제 전환과 동일선상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8. 영아기 발달과 유아기 발달의 중요성과 연계성 및 생애 초기의 발달이 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비추어볼 때, 0~5세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은 같은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3~5세 누리과정과 영아기 표준보육과정은 똑같은 비중의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영아교사와 유아교사의 정교사 자격 조건은 같은 조건에서 고려되어야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할 수 있다.
9. 보육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수교과목에 대한 학점 하한선(예, 평균 학점 80점 이상)의 규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과(2007). 교사자격 무시협검정 기준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및 교육부고시 신설 안 주요내용.
- 권건일 · 이미정 · 이희경 · 정선아 정혜순(2007). 유아교사(보육 · 유치원 교사) 자격의 강화, 유아교육체제정립을 위한 교원정책 발전방향. 한국유아교육학회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토론회.
- 김명순(2010). 보육선진화를 위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전문성 향상에 관한 개선안 논의. 보육선진화를 위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김은설 · 안재진 · 최윤정 · 김의향 · 양성은 · 김문정(2010).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의향(2009).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 자격배출 현황 및 과제. 2010년 추계 보육관련 학회 통합 학술대회 자료집
- 김의향(2013).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관리와 처우개선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신유림(2013). 미국 보육제도 : 개인주의 및 시장주의에 기초한 선별적 보육지원. 한국아동학회 2013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안재진(2013). 세계 주요국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보육의 과제와 전망 : 보육교사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2013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이미정(2009).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한국보육학회지 제9권4호.
- 이미화, 장명림, 신나리, 김문정, 김현철 (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 장경희(2013). 일본의 공적 보육소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학회 2013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한유미(2013). 스웨덴과 핀란드의 공보육 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2013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황성원(2013). 프랑스 보육정책의 육아지원 공공성 연구. 한국아동학회 2013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황옥경(2013). 영국보육정책의 변화와 혁신. 한국아동학회 2013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OECD(2008). Starting Strong II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 France : OECD

OECD(2012). Starting Strong Ⅲ :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 France : OECD

<http://www.law.go.kr/>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3)

<http://www.law.go.kr/>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2013)

**2.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문**

1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문

서 영 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발제자 이미정 교수는 교사의 자격체제와 양성교육과정 등의 주제를 핵심으로 보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다루었다. 이는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자발적 비자발적 (또는 의도적 비의도적), 보일듯 말듯(또는 드러내듯 감추듯)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진지하고도 명확한 문제 인식과 구체적인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자가 더 이상 토를 달 내용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토론자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다룸으로써 발제자의 논의를 보완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1. 보육교사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 향상을 통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인천교육대학교 박인기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인식의 개념으로 교사 능력의 실체로서의 전문성, 교직 수행의 적용 구조로서의 전문성, 사회문화적 인식태(認識態)로서의 전문성의 세 차원의 인식을 소개하며 이에 따른 초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해서도 유용한 개념이라고 본다.

발제자가 다룬 보육교사 자격체제와 양성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은 이 주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의를 총망라한 종결판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과 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찰 및 기록에 관한 내용,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누리과정 수행방법에 대한 내용, 부모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상호 기여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한 교과목이 더 많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과 전공과목을 80점 이상으로 할 때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를 덧붙이고자 한다.

이 발제의 내용은 특히 교사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전문성 향상 방안으로 이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자 전통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즉 보육교사로서의

전반적인 교양적, 학문적 소양과 누리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유아를 위한, 유아에 대한 열심 등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육교사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 체계와 교육과정 관련 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2. 누리과정 수행 인프라 향상을 통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개인의 능력과 자질로 파악하면 전문성 제고는 개인의 노력 요구나 양성 프로그램과 재교육의 내용을 개선하는 처방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교사가 보육현장에 투입되어도 누리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누리과정 적용 구조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발제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문제 등은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인프라일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육교직원과 학계는 물론, 언론기관에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심각하게, 애타게 제기한 문제이지만 아직도 진전이 거의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다. 보육교사가 하루 8시간 이상을 유아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누리과정 수행을 위한 준비와 평가, 연구의 시간을 짜낼 수 있어 내실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를 기할 수 있겠는가?

누리과정 수행을 위한 인프라에는 재정적 지원이나 물리적, 또는 기술적 인프라 뿐 아니라 문화적 인프라도 생각할 수 있다. 박인기 교수의 설명을 가져오면 여기에는 보육교사 공동체가 누리과정을 수행할 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효율성, 세련도, 의사결정 체제, 문제 해결력, 그들 공동체에 문화로서 녹아들어 있는 교수 행위의 양태 등이 있다. 가령 보육교사가 원장을 포함한 동료교사와 더불어 누리과정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대한 학문적, 경험적 지식과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누리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공동체로서의 열정과 즐거움을 경험하여 그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구축과 지원 인프라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문화적 인식전환을 통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다.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기대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인식도

큰 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박인기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가치, 의식, 경제적 조건, 문화적 성향, 사회적 계층 구조, 기술 환경 등에 의해 규정되는 면이 많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등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문화적 기획을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초등 교원 전문성을 토대로 기획된 프로그램 방송이나 다른 전문직종과의 상호 교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 등을 통해 바깥사회와의 꾸준한 상호교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결국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인과 확신을 위한 다양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는 무엇보다 보육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인,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하루 종일 자기집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아닌 보육교사와 더불어 생활하며 성장하고 있는데도 마치 부모(엄마)가 집에서 자기 아이 한 명 키우듯 하도록 보육교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교사라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일 것이다. 이 전문성은 유아에게도 여전히 요구된다. 그런데 누리과정의 수행은 마치 이런 돌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혼돈과 충돌, 심지어는 누리과정 전문성 부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4.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교사의 성찰적 평가를 바라며

누리과정의 내실화란 누리과정이 궁극적으로 수정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의 내용이나 적절한 수행 방법론 등을 연구하고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현장에서 직접 누리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유아, 부모를 통한 실증적 연구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누리과정의 내용이 유아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지, 유아의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수행방법은 무엇인지, 누리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유아의 행복감과 능력이 증대되어 가는지, 그리하여 심지어는 그 목적이나 방향이 맞는

지 늘 질문을 던지고 알아보고, 동료교직원과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문

이 정 옥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2012년 「5세 누리과정」의 시행에 이어 2013년 3월부터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만 3, 4, 5세 유아에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해 1일 3~5시간의 기본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국가가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선 상의 평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과 보육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학습에 기여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출산율 증가를 포함하여 폭넓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quality) 제고를 위해 OECD(2012)는 몇 가지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교육과정 및 학습기준의 설계와 실행’, ‘교직원의 자격, 훈련, 근무조건의 향상’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정이나 학습기준은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들이 균등한 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실행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란 점에서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균등한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교사의 자격, 훈련, 근무조건의 향상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위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이끄는 것은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교사의 역량은 자격 기준과 훈련, 근무조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있으나 문서상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에 오늘 누리과정 발전 포럼에서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나누어서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느 곳을 다니든지 공통된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실행하는 교사의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이원화하여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물론 현 시점에서 관리체제와 법, 교사자격 및 양성과정이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알지만 누리과정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에게 공통되게 요구되는 자격요건과 전문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 유아교사의 양성경로, 양성교육과정, 양성기간, 자격증의 종류 및 취득요건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본 토론자는 이와 같은 기본입장을 먼저 밝히고,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유치원 교사 양성현황,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기초로 하여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에서는 발표자가 제시하는 유치원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중 수업연한 강화, 현장실습 과목 확대 및 양성교육과정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유치원 교사 양성대학의 수업연한 강화

발표자는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는 2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을 2012년 2월 기준으로 교원양성대학의 수업연한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4년제 대학(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36.6%, 2, 3년제 전문대학이 63.4%로 전문학사 소지자가 학사학위보다 더 많으나, 2011년 현직 유치원 교원의 학력 분포 상에서는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의 교사가 49.9%로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교사 49.04% 보다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 졸업교사들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이나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위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교원양성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토론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OECD(2012)에 따르면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체제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기준에서 그 격차가 크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보다 양성교육의 수준이 높으며,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교원양성대학의 수업연한이 2, 3, 4년제로 다양화되어 있어 초등 이상 학교의 교원이 학사학위 취득자인데 비하여 학력 수준이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대학의 수학연한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이 부여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선정은 유치원 현장 근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년제 대학 졸업 교사가 4년제 대학 졸업교사 보다 1급 정교사 승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연구(김정숙, 이종향, 박영숙, 조현정, 2011)에서 유치원 교사는 자신을 전문가로 인식하지만 학부모는 반전문가, 일반인은 비전문가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의 질이며,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에서 교사의 높은 교육수준은 교육의 질 향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다(OECD, 2012). 또한 학력과 전공은 교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연구결과들(Howes, 1997;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2)에 따르면, 교사가 유아교육이나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교사의 교실보다 질적인 지표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신은수·박은혜, 2012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김영옥, 2013)에 의하면, 다원화·다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미래 인재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사양성교육은 4년의 수학연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려는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담당교원의 질 제고가 우선되어야 함으로 이를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수업연한을 4년으로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2010년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인 ‘유치원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선 방안’연구(육아정책연구소, 2010)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다: 전문대학 학제개편에 의한 4년제 과정 전환; 전공학사와 전공심화과정의 연계;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편입학. 앞으로 이들 방안들의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원양성대학의 수업연한 강화와 관련하여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소요예산확보와 전문학사 소지 현직 교사들의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 제공이다.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자격요건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향상시키는 것은 임금상승과 직결되는 문제이므

로 정부는 예산 측면에서 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자격강화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면밀히 계상하여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49.04%로 달하는 전문학사 소지자인 현직 유치원 교사들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유사한 경험을 하였던 초등교원의 학력 강화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현장실습 과목 확대 및 양성교육과정 표준화

발표자는 교직과목과 전공이수과목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유치원 현장실습 과목을 현행 2학점에서 4학점으로 확대하고, 양성대학 및 실습지도교사용 실습표준지 침서 개발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 토론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유치원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이 4주간의 유치원현장실습으로 그치는 것은 초임교사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일부 교원양성대학들은 정규 교육실습 이전과 이후에 사전교육실습이나 사후교육실습이란 형식으로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2, 3년제 교원양성과정에서는 현장실습의 확대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김영옥, 2013)에서는 국외 여러 나라들의 교사양성과정은 교과수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실습 기간이 한 학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충분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2, 3년제 교육연한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4년 교육연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습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의 질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발표자는 양성대학 및 실습지도교사용 실습표준지침서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토론자는 이에 덧붙여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교사의 자격조건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현장 및 유아들을 이해하고,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현장실습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기관과 교사의 지도 아래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기준이 있으면 현장실습 지도를 하는 기관 및 지도교사는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이며 우수한 교사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므로 실습지도에 대한 동기유발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정보공시에 포함하여 대외

적으로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발표자는 교원양성대학의 교직과목과 전공기본이수과목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사양성교육의 동질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직과목과 전공기본이수과목의 표준화된 교수요목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표준화된 교수요목 적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발표자 스스로 표준화된 교수요목은 획일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질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실습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작성하는 것과 각 과목별로 표준화된 교수요목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교육학 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에 의하면 교수요목이란 ‘한 교과와 교육내용을 주제별 항목으로 조직하여 열거한 것으로 그 교과에 어떤 내용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과목별 교수요목은 해당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표준화하자는 것은 어느 대학에서 배우든지 동일한 과목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자는 생각이 전제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획일화와 동질화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각 과목마다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발표자는 교직과목의 경우, 과목명과 학점은 표준적이나 각 과목의 교재는 저자에 따라 교수내용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목의 명칭과 학점에 대한 표준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과목명칭 만으로도 그 과목에서 배우기를 기대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범위를 설정하게 되므로 그 안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교수의 자율권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며, 학문의 권위와 자율성이 생명인 곳이다. 동일한 과목의 교재라도 집필자의 철학과 접근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강의하는 교수에 따라 동일한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 및 강조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또한 학문의 자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안에서 다루어지는 교육내용을 표준화 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자율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목 명칭의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표준화된 교수요목은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토론의 도입에서 밝혔듯이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에게 공통되게 요구되는 자격요건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논의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참고하여 앞으로 공통된 자격요건과 양성과정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실시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정숙, 이종향, 박영숙, 조현정(2011). 유치원 교사, 학부모, 일반인이 인식하는 유치원 교사의 직업 이미지. **유아교육학논집**, 15(3), 459-484.
- 김영옥(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광주광역시교육청.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 하우동설.
- 신은수, 박은혜(2012). 2011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의한 유아교육단계의 교원제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7(3), 265-282.
- 육아정책연구소(2010). **유치원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선 방안**. 유아교육선진화기반 조성사업 보고서.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 OECD(2012).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Start Strong III :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신동주, 장혜진, 이경옥 역). 서울 :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문

이 남 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2013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운영을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공개 세미나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체제와 양성과정에 대해 살펴 본 원고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고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하는 바이다.

1.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체제 도입 및 자격증 발급

현행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체제의 문제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3급→2급→1급→원장까지 승급하는데 별도의 진입장벽이 전혀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에 진입하는데는 고졸학력이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인다. 최소한 전문대이상의 학력과 1년과정, 학점은행제 혹은 개방형 학점제를 통한 자격의 취득은 각각의 차별을 두고 보육교사의 자격제도를 달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개방형 학점 이수제의 경우, 보육과 무관한 여타의 전공생들이 보육에 대한 정체성이나 예비보육교사로서의 사명감 없이 자격증을 끼워 받듯 취득하여 손쉽게 어린이집현장으로 진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점은 현장에서 누리과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학점은행제나 사이버교육기관의 제도하에서는 전문적 지식도 영유아를 향한 사랑도 수행능력도 갖추기 전에 초고속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은 단기간에 주어진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론에 근거한 교육과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에서의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누리과정의 질 높은 운영은 학과 중심의 자격취득 경로로 전환하고 자격제도의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하

겠다. 2013년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전면 실시되는 진정한 누리과정은 무엇인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1일 간의 교육받고 사이버과정을 이수하면 누리과정이 실행되는 것인가? 그것은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 그 자체가 실행이 될 수 없다. 과연 보육교사들은 누리과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현장에서 유아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사고를 확장시키며 통합적으로 실행할 능력이 갖추어졌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행능력, 교육과 보육이 실행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 실시하는 교사의 자질 그리고 그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할 때 진정한 누리과정이 실행된다고 본다. 이에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을 유치원 교사 자격취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2.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 강화

현행 자격제도는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동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양성과 자격을 이분화 할 필요가 있다. 양성 자체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 이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자격미달의 예비교사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유아 및 아동관련 교사 임용 및 채용시 도제제도를 통한 관련분야 수습기간을 가지도록 명문화할 수도 있다. 보육교사로 채용 또는 임용되는 예비교사들은 반드시 일정기간 보조교사로서 근무한 다음 본 채용이나 임용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는 보조교사나 수습교사로서 수석 교사에게 일정기간 관련 업무만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이해와 현장업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철학을 보다 구체화 하고 본인이 단순히 직업으로서 교사가 아닌 철학이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일정 자격 미만의 예비교사들은 임용과정이 아닌 자격부여 과정에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른 직업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는 그 영향력이 다른 어떤 존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교사의 존재는 부모와 같다 어쩌면 특정 측면에서 부모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단순히 양성과정만을 이수하였다고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의 교과목 강화부분 또한 자기발전적이고 아동에 대한 신념과 철학적 바탕이 충실한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의 교과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 현실화

어린이집 교사는 매 2년의 한번 동일한 교과목으로 보수교육 등의 재교육을 받고 있다.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8시간, 온라인 15차시의 교육만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체계 및 양성과정의 교과목 강화 뿐 아니라 각 어린이집의 특성이 함께 반영된 누리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장학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의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교과목위주의 보수교육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수교육 등의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주일씩 어린이집을 비우고 형식적 보수교육을 받기보다, 서울시어린이집 연합회나 각 지역의 보육정보센터, 학회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는 공통의 누리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위 내용들을 제언하는 바이다.

특히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들은 자기발전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의 투자는 유치원 교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장기간의 근무시간, 많은 업무 부담, 체계적이지 못한 장학이나 행정지원체계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육교사의 자기발전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체계, 양성과목의 강화, 현장의 재교육 및 그에 맞는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누리과정만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안정된 현장마련도 시급한 문제이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안심모니터링, 서울형 재인증, 평가인증, 각 자치구의 지도점검 등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그에 따른 누리과정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운영과정들을 제대로 감당하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앞선다.

4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회

신 경 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이사)

1. 들어가며...

3~4세 누리과정이 확대·시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겪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통해 3~5세 누리과정이 더욱 단단해진 커리큘럼으로 구성됨으로써 유아들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어느 시설을 선택하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누리과정의 실행과정을 거치는 동안, 가장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누리과정 교사연수가 정해진 기간 안에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양적인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교사들이 유치원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유아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은 목표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즉, 유아들만이 동일한 출발선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이라는 교육현장의 입장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본론

1) 신입교사 양성체제로서의 대학교육기관의 유아교육 현장 경험 강화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양성됩니다. 각 대학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만 유아교육의 현장을 접할 기회는 1개월 정도의 실습기간이 전부입니다. 이 실습기간은 현장에서의 실무를 충분히 경험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습기간이 짧으므로 사전실습, 정규실

습 및 사후실습으로 나누어 실시되어야 한다(박지완, 2001)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시간에 쫓기면서 모든 실습을 마치려다 보니 관찰과 수업 계획, 부분 수업 및 전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간혹 시간 내에 실습이 모두 정확하게 마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짧은 실습기간동안 한 연령층의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실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대학에서의 교육실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대학의 과목에 누리과정의 내용적 측면을 적용하여 예비교사들이 미리 누리과정의 커리큘럼을 충분히 경험하고 교육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리과정 교사로서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경력 교사를 위한 심화된 내용의 연수 및 재교육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된 이후 대부분의 교사들은 한 번의 연수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에 대한 확신 부족, 누리과정 내용 숙지 부담 등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과정 연수가 누리과정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해보는 시간이기보다는 누리과정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근본적인 이해와 적용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누리과정 연수가 양적인 연수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심화된 내용과 형식(현장에서의 적용,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용하는 소규모 분기별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진 질적인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안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사들의 누리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서 교사전문성 증진

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효능감과 유아의 인지, 언어, 정서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는 관련성이 있다(장미정, 2011)는 연구결과가 말해주듯이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 가운데 보수수준이 타 직종에 비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견해(신현주, 1995)가 많았으며, 특히 수당, 상여금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더불어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복지차원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를 ‘교사’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매스컴에서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교사들의 사례가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유아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일반화 되어 버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인지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초를 이루게 되는 유아기의 어린이들을 교육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교직에 임하는 바, 이러한 매스컴의 보도와 사회적 시선에 직업적 회의를 느끼고 전업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생겨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좀 더 교사들을 배려하고 유아교사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소수의 교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스컴에서도 부정적인 부분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명감을 가진 교사들에 대한 기사나, 교사들의 어려움을 깊이있게 다룸으로써 직업적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각 기관의 자율권 보장

누리과정이 시행됨으로써 취학 전 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각 기관에서의 자율성은 배제되고 획일화되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공립교육기관들이 발전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오히려 퇴보함으로 인해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공교육기관 간의 경쟁체제인 ‘Race to the Top’이라는 프로그램과,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차터 스쿨’의 증가는 우리들의 공교육화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유치원들은 자신들의 특색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유아교육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유아교육현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3~5세 누리과정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각 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자율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누리과정 운영 시간이 3~5시간을 적용하도록 지침이 주어졌는데, 요즘 들어서는 5시간을 운영하도록 고정화 되어 가는 분위기이며 방과후 과정은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의 현장이 교육이 아닌 보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면서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교육 계획 시간 부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일일교육과정시간을 현행대로 3~5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방과후과정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어 교사들이 보다 다양한 양질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리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 각 유치원의 특성이 공존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됨으로써 특색 있는 기관별 전문 지식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께 발전시킨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유아교육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규칙 속에서 다양화가 존재하는 형태의 유아교육현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마치며...

3~5세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커리큘럼 자체의 질적 성장만큼이나 교사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의 확대·시행에 따라 교사수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국가수준의 질적 향상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신입교사 양성체제로써 대학교육기관의 유아교육 현장 경험을 강화하여 교사로서 일선 현장에 나오기 전부터 충분한 시간의 실습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력 교사를 위한 심화된 내용과 다양한 유형의 연수 및 소규모 분기별 교육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처우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직업적 소명감을 가지고 교사전문성을 스스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일교육과정의 융통성 있는 운영 등의 각 기관이 가진 독특한 특색과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누리과정 틀 안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유아교육현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회

김 수 영 (부산시청어린이집 교사)

누리과정은 만3세~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누리과정을 통하여 만3세~5세 유아 모두가 생애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행정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지원 및 관리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자격 수준 차이는 공정한 출발선의 보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은 교사들의 자격체계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되었듯이 보육교사 최저학력의 상향 조정, 학과 중심제로의 자격취득 경로 전환, 보육교사의 등급 조절과 역할 구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공통 교과목 선정, 보육실습의 강화 등 보육교사를 양성함에 있어서부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본인은 이미 자격을 취득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는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영아반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내용임을 앞서 밝힌다.

I. 누리과정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마련

1. 누리과정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와 의견 공유

교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활동자료 DVD를 제공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진행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자료와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교사들은 보다 쉽게 검증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새로운 자료가 첨부될 때마다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교사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누리과정의 정착을 돕는 밑바탕이 되리라 기대된다.

2. 누리과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용이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의문점은 대체로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하여 누리과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용이하게 되면 누리과정 운영의 시행착오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교사들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누리과정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1. 연령별 누리과정의 적절성과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하루의 집합연수와 한 달 동안의 원격연수가 이루어졌다. 이 연수를 통해 누리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으므로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으나, 하루의 교육은 부족했고 온라인교육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는 검증할 수가 없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실제 운영을 중심으로 통합·확장되는 실례를 소개하고 연령별 누리과정의 적절성과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원장 및 중간관리자의 누리과정 교육이수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교육은 연령별 담임교사부터 시행되었다. 원장이나 중간관리자가 누리과정의 바람직한 현장적용을 위하여 수업관찰 및 평가, 교수·학습방법 지도조언 등으로 교사들을 지원하고자 하여도 누리과정에 대한 정보가 늦거나 연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교사들의 보수교육 강화와 더불어 원내에서 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병행되어야겠다.

Ⅲ. 중간관리자(원감, 주임 등) 제도 도입

1. 중간관리자 제도의 필요성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체 규정으로 원감 혹은 주임교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간관리자의 경우에는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보육과정 운영자, 관리자, 지도자, 인화자, 대외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원감이나 수석교사처럼 그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의 운영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원장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육운영의 실재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2.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 기대

누리과정 운영의 바람직한 현장적용을 위하여 수업관찰 및 평가, 교수·학습 방법 지도조언, 원내외 장학활동을 위한 연구수업 등을 진행하며 원내 교사들의 질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자원은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일 것이다.

최근 컨설팅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력부족,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간관리자를 통해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컨설팅의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IV. 자격 등급, 학력 등을 고려한 차등 호봉제 지급

1) 현재 보육교사 급여체계의 문제점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종사비율이 28.6%에 그치고 있어 수급 조절에 문제가 있으며, 현직 종사비율 중 3급 취득자가 52.9%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보육교사 처우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3급의 경우 그 자격조건이 고등학교 졸업자도 가능하므로, 학력 면에서 보육인력 전체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최저학력의 상향조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서는 자격 등급(보육교사 1급, 2급, 3급)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같은 호봉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유아교육관련 정규교육과정을 거친 보육교사나 경력이 많은 1급 보육교사들은 3급 보육교사들에 비해 전문성 수준과 역할수행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봉을 적용 받는 현실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되며, 3급 보육교사들은 그들의 수준과 위치에 안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 차등 호봉제 도입의 필요성

사회복지사의 경우 급수와 직위에 따라 차등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에도 정교사 1급과 2급이 같은 호봉체계를 적용받고 있지만 자격과 학력에 따라 호봉이 상향조정되고 있다.

급여는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직무만족과도 직결된다. 차등 호봉제는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할 것이며,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육 전문가들이 보육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일조하리라 본다.

급여체계를 개선할 때 한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영아반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다. 최근 누리수당으로 인해 영아반을 담당하게 된 1급 경력 교사가 유아반을 담당하게 된 2급 초임교사 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영아반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사들 간의 내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0세~만5세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이 같은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만3세~5세 누리과정과 영아기 표준보육과정이 똑같은 비중의 중요성을 가짐을 고려할 때 영아반 교사들의 호봉체계와 처우개선도 같은 선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문

류 혜 정 (온양동신유치원 교사)

2013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100년 역사상 가장 큰 성과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적용되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보편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공통 과정이다. 누리과정의 적용은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화 되는 전환점이고,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던 3~5세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이 서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누리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통합되고 보편화 되었으므로 이제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의 자격 및 전문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본 토론문은 주제발표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유치원 교사 양성 현황,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과 양성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1. 유치원 교사 양성 현황면에서

유치원 교사의 양성은 106개의 전문대학과 86개의 4년제 유아교육과에서 한 해에 약 1만5천명이 배출되고 있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80%, 4년제 대학 졸업자의 76% 정도의 높은 취업률로 나타난다. 전문대학의 경우 2002년부터 2년제에서 3년제로 개편이 가능해지면서 86%의 전문대학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배출하고 있는 예비교사는 약 9천명으로 전체 배출인원의 2/3에 해당하나, 현재 재직 중인 유치원 교원의 학력은 전문학사나 학사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전문학사 교사들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이나 4년제 편입을 통해 학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또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도 약 8%정도) 이는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연한을 스스로 늘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타급별 교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교사 양성 수업연한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일이다.

또 유치원 수는 교사의 수급과 관련되므로 교사 양성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2013년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전체 유치원 교원수는 2012년보다 3,500여명 증가되어 약 4만 2천명 정도이고 유치원 수(약 8천 5백개)도 함께 증가되어 현재 3~5세의 47% 정도가 유치원에 취원(어린이집 포함 전체 취원을 약 9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규 자격증 취득자 수가 늘어난 교원수보다 2.5배 더 많으므로 유치원 교사의 수급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교사 수급의 불균형은 비정규직 양산,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여건, 공립유치원 임용 교사의 과다 경쟁 유발, 높은 이직률과 채용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시 방과후과정반 전담교사를 포함한 수급 계획과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의 확산, 보조교사 활용, 법정 학급당 인원수 기준 조절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학제화를 고려한 3~5세 대상 전체 원아수를 근거로 수급 인원을 추정해야 한다.

2.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교육과정 운영 현황면에서

유치원 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2013학년 입학자부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되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과목 이수를 필수로 넣었다는 점과 교사의 인성과 적성검사를 양성과정에서 의무화 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중 교양과목은 교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줌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문대학의 교양과목 시수가 4년제 유아교육과 교양과목 시수에 비해 비중이 낮으므로 상향 조정하여 각급 학교 교사와 동등한 교직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커리큘럼이 일부 과목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양성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된 내용과 구성을 제시하는 표준양성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양성기관간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지식의 기초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체계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는 공·사립을 막론한 열악한 근무여건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낮은 보수와 짧은 근속기간, 높은 이직율, 자율성의 결여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낮다. 취약한 유치원 공교육의 기반과 유치원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미미한 행·재정적 지원을 가져와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을 위협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수업연한을 타급별 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4년으로 늘려야 하고,

둘째, 국가수준의 표준 양성과정을 통해 교사의 질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며,

셋째, 행정인력 배치로 교사의 수업권 확보(전체 유치원의 10% 정도 사무직 배치됨, 공립은 1%),

넷째, 표준 수업시수의 법제화를 통하여 적정 수업 시수 담당(방과후과정 시행으로 수업과 업무 병행시간이 길어짐),

다섯째, 사립유치원 교사(유치원 교사의 78%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등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통합, 공립유치원 확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공통 교육과정 시행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학제화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본 토론회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해 깊은 토의를 하게 됨을 육아정책 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과 성과 이상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유아교육에 대한 기대가 현장의 교사로서 매우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3. 부 록

붙임1

「누리과정 발전포럼」 추진 계획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3년에 3~5세 까지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의견 차이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아교육·보육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각계각층의 통합된 시너지 창출 필요
 -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5세 누리과정' 제도도입 계획 발표('11.5.2) 및 공통과정 고시('11.9.5)
 - '13년 3월부터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시행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 발표('12.1.18)

⇒ 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13년)에 따라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추진 및 유아교육·보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누리과정 발전포럼」 운영 필요

2. 추진 목적

- 누리과정과 관련된 유아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유아교육·보육계를 포함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수렴 및 교류의 장 마련
-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실천적 협력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전문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최적의 전문화된 누리과정 지원체계 구축 및 지지 기반 마련

3. 추진 방식

- 포럼 주관 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포럼 운영 기간 : 2012. 7 ~ 2013. 6(1년간)
- 포럼 개최 형식 및 횟수
 - 자체 토론회 및 공개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
 - 1년간 8회 개최('12년도 4회, '13년도 4회)
 - 자체 토론회는 조찬 또는 만찬 형식으로 개최
- 포럼 주제 :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및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등 관련 주제
- 구체적인 포럼 운영 방식과 추진 일정은 1차 포럼에서 협의하여 결정
 - 주제별 발표자와 토론자 선정 방법 등 포함

붙임2

「누리과정 발전포럼」 위원 구성

구분	연번	성명(소속, 직위)	단체명/기관명	비고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회 및 협회	1	지성애(중앙대 교수)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
	2	김명순(연세대 교수)	한국아동학회	보육
	3	표갑수(청주대 교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보육
	4	이대균(배재대 교수)	열린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
	5	심의보(충청대 교수)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유아교육/보육
	6	이미정(여주대 교수)	한국보육학회	보육
	7	최연철(건국대 교수)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유아교육/보육
	8	임재택(부산대 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
	9	서영숙(숙명여대 교수)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보육
	10	김미경(충신대 교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
	11	문연심(강남대 교수)	한국육아지원학회	유아교육
	12	황해익(부산대 교수)	한국보육지원학회	보육
	13	이순례(강남대 교수)	대한어린이교육협회	유아교육/보육
	14	김성일(고려대 교수)	한국마음두뇌교육협회	-
유아교육·보육 관련 교수 협의회	15	윤길근(부천대 교수)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유아교육
	16	김익균(협성대 교수)	전국보육과 교수협의회	보육
	17	이숙희(중앙대 교수)	한국보육아동 관련학과 교수협의회	보육
유아교육·보육 관련단체	18	석호현(유치원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유아교육
	19	전호숙(유치원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유아교육
	20	류지후(유치원설립자)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	유아교육
	21	정광진(어린이집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보육
	22	백운찬(울산꿈나무특수어린이집 원장)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보육
	23	이순희(파랑새어린이집 원장)	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장	보육
유아교육·보육계 원로 교수	24	이원영(前 중앙대 교수)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PECERA) 아태지역 前 회장	유아교육계 원로
	25	이은해(前 연세대 교수)	한국보육진흥원 前 이사장	보육계 원로

구분	연번	성명(소속, 직위)	단체명/기관명	비고
관련 전문가	26	이재인(원장)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보육사업
	27	조원철(연세대 교수)	규제개혁위원회행정사회분과 위원장	토목·환경
	28	서유현(서울의대 교수)	한국뇌연구원원장	의학
	29	이경자(학부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학부모단체
	30	정혜숙(학부모)	평가인증 부모서포터즈	학부모
	31	이영(한양대 교수)	경제금융학부	경제학
	32	이광우(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수학습본부장	교육과정
	33	우명숙(교원대 교수)	교원정책대학원	교육행재정
	34	이명희(중부대 교수)	유아특수교육과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부회장
	35	이재원(부경대 교수)	행정학과	보육정책
언론인	36	양영유	중앙일보 편집국 행정국장	
	37	김은주	연합뉴스 논설위원	
국회의원	38	김세연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39	유기흥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40	유재중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41	이목희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육아정책 연구소	42	이 영(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아동학
	43	장명림(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	유아교육
	44	이미화(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보육
	45	김은영(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팀장	간사
	46	조혜주(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사업지원
	47	남상보(인턴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사업지원

〈부처 참여자〉

부처	연번	성명(직위)	소속과	비고
교육부	1	정병걸 국장	지방교육지원국	
	2	김도완 과장	유아교육정책과	
	3	장석환 사무관	유아교육정책과	
	4	김선숙 연구관	유아교육정책과	
	5	장윤정 연구사	유아교육정책과	
보건 복지부	1	-	보육정책관	현재 공석
	2	이상진 과장	보육사업기획과	
	3	신욱수 서기관	보육정책과	
	4	박재우 사무관	보육사업기획과	
	5	양명철 사무관	보육기반과	
	6	이성우 주무관	보육정책과	

붙임3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회 개최 일정 및 토론 주제

구 분	주제 명	운영 방식	일정
발족식 및 제 1차 포럼	● 포럼 운영 목적 및 방향, 주제 논의 - 누리과정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 발표 *발표자: 장명림(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전체 토론	'12. 7. 26(목), 17:00~19:00 세종호텔 (3층 세종홀)
제 2차 포럼	● 5세 누리과정 현장 적용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발표자: 전호숙(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오경숙(구립 면일어린이집원장) - 누리과정 내용의 강조점(실천적인 창의·인성 교육 강화(정서포함), 인터넷 게임중독예방, 유아 특수 및 장애아배려 교육내용 및 지원안)	전체 토론	'12. 9. 6(목), 07:30~09:30 세종호텔 (3층 세종홀)
제 3차 포럼	● 누리과정 질 제고 관련 요인별 소집단 토론 - 발표자: 김영옥(전남대 교수), 이완정(인하대 교수) - 소주제 1 : 기관별 누리과정 운영 변인 - 소주제 2 : 교사 변인	소집단 토론 (2개 분과)	'12. 10. 18(목), 16:00~19:00 대한상공 회의소
제 4차 포럼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발표자: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지정토론자: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혜영(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영란(서울 동아유치원장), 서원경(중앙청사한빛어린이집원장), 김희선(서울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수정(구립 물빛어린이집 교사)	공개 세미나	'12. 11. 14(수), 14:00~18:00 포스트 타워 대회의실
제 5차 포럼	●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 발표자: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박초아(울산광역시 보육정보센터장)	전체 토론	'13. 2. 28(목), 07:30~09:30 세종호텔 (3층 세종홀)
제 6차 포럼	●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방안 - 발표자: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장) - 지정토론자: 지성애(한국유아교육학회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장), 김의향(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장)	전체 토론	'13. 4. 4(목), 16:00~19:00 세종호텔 (3층 세종홀)

구 분	주제 명	운영 방식	일정
제 7차 포럼	●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 발표자: 이희경(부천대학교 교수,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총무이사) - 이미정(여주대학교 교수, 한국보육아동관련학과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 좌장: 김이경(중앙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자: 서영숙(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이정욱(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이남주(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장) - 신경은(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이사) - 김수영(부산시청어린이집 교사) - 류혜정(온양동신유치원 교사)	공개세미나	'13. 5. 23(목), 14:00~18:00 포스트 타워 대회의실
제 8차 포럼	● 누리과정의 성과와 과제 - 3~5세 누리과정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 과제 논의 - 1년간 운영한 「누리과정 발전 포럼」 정리 * 보고서 발간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논의	전체 토론	'13. 6. 20(목), 07:30~09:30 세종호텔 (3층 세종홀)

